



모든 서울대생에게 장학금 주게 될 날을!



본회는 지난 2월 22일 2007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재학생 1백5명에게 2억6천2백63만9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3~4면>

사진 본부 李五福는설위원



제61회 학위수여식<사진 左·관련기사 14~15면>, MBC 嚴基永특목일이사 '서울대 언론인 대상' 수상 <관련기사 5면>



관악출추

서울대총동창회가 봄의 문턱에서 올해 첫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을 받은 1백5명의 학생들은 허비 걱정이 한결 가벼워져 면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장학금에는 선배들의 따뜻한 후배사랑과 정겨운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래서 장학금 전달식장은 봄기운보다 더 훈훈하고 아름다웠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은 학와의 젖줄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수요는 늘어나나 공급이 따르지 못해 장학금은 언제나 턱없이 모자란다. 요즘처럼 경제가 좋지 않고 소독은 감소하는데 거꾸로 등록금은 큰 폭으로 올라가니 장학금쪽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올해 국공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2백~4백만원, 사립대는 4백~6백만원이다. 의학계열은 1천만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 웬만한 가정형편으로는 허리가 휘 관이

다. 극성스러운 사교육 경쟁에 지친 후라도 저소득층 기층은 더욱 등이 굽어지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분배정책의 하나는 교육이다. 부모세대가 사회적 경쟁에서 밀려나도 해도 자녀세대가 교육을 통해 '계층사다리'를 타고 상층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학금은 곧 교육투자이고 계층상승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지렛대라 할 수 있다. 또 장학금은 부의 재분배로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에도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장학금, 그 훈훈한 교육투자

간의 끈끈한 정을 잇는 아름다운 끈이다. 수혜 학생이 자력으로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동하고 역할을 다시 후배를 위한 장학금에 기여하는, '장학금 릴레이'로 이어질 때 이 장학금의 의미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서울대총동창회 장학금이 더욱 더 확대되어, 미국의 하버드대학 수준은 아니더라도, 학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면 한다. (金鎮綱는설위원)

느리나무광장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사뮤엘슨 MIT 교수는 그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1776년 독립선언서에서 비전을 '생명, 자유 및 행복'으로 올바르게 정하고, 이를 2백년 넘게 변함없이 추진해온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류의 특징은 국가, 기업, 대학 할 것 없이 비전을 올바르게 정하고, 이를 변함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 서울대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것이 궁금해 모교 부총장직에 임할 때 미국 위스콘신대 존 워드 총장을 찾아가서 이를 물어봤다. 그는 세계수준(World Class)의 종합연구대학(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이 바로 서울대의 비전이라고 했다. 스탠퍼드대 도널드 케네디 총장과 하버드대의 날 부렌스타인 총장을 만나서도 같은 질문을 해봤다. 답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울대가 종합연구대학으로 연구만 한다면 교육과 지도자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연구대학이라고 할 때 '연구'는 협의적·독점적이라는 뜻으로 연구, 교육, 지도자상성 등을 모두 협의적·독점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지 연구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다형히 서울대는 얼마 전 비전을 세계수준의 CRU로 정했다.

세계수준 종합연구대학

宋 丙 洛
자유기업원 이사장
본보 논설위원



존 워드 총장은 이런 말도 했다. 위스콘신주에는 13개의 주립대학이 있는데, 한 때 정치가들이 표를 의식해 예산을 균등 분배했다니 허황평탄화되어 일부교수들이 모두 떠나 교육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캐지도지들이 해를 겪을 모래밭 끝에 이종 한 개만 세계수준의 CRU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와 연계해 몇몇 학문분야를 전문하는 대학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위스콘신대(마디슨 캠퍼스)만 CRU로 많은 예산을 받아 저명교수들을 다시 스카우트하는 등 세계수준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도 대학들을 평준화하지 말고 소수를 세계수준의 CRU로 선정해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했다.

태생수준이 양공, 소프트웨어 등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 일류하는 선수를 육성하는 곳이라면, 종합연구대학은 한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세계일류하는 전문가, 지도자, 전략가들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곳이다. 글로벌경쟁시대 한국의 생존은 이들 경쟁대상 국가보다 얼마나 더 잘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도 국가대표 CRU육성에 일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관아시단

봄의 찬가

柳 子 孝(불어교육68-75)
시인·방송인

지난 겨울 큰 눈에
이 숲의 늙은 피목이 쓰러졌지요
늙은 피목이 쓰러지면서
나무가 살아온 오랜 세월도 함께 쓰러져
눈 속에 깊이 깊이 파묻혔지요
어느새 이 숲에 새들의 지저귐이 살아날 때쯤
늙은 늙고
개울의 흐름을 보았었지요
물기를 뒤집어쓰고 모습을 드러낸 쓰러진 피목
아, 거기엔 기적처럼
작은 잎새 하나가 피어 있었죠
그 잎새에 이제 막 당도한 햇살이 밝은 인사를 전하자
숲은 우렁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면서 기적이 채고
인상하던 가지들이 몸을 땀처럼
긴 겨울을 살아냈음을 축하했지요
그래요
살아 있음은 복된 것이었어요
그 무서운 계절에 굴복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장한 일이었어요
죽어 쓰러진 피목마저도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삶을 찬미하는 봄에
이 거룩한 봄에
우리 다시 눈물겨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동문칼럼

우리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단지 아파트의 값과 장소의 관점에서만 시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주거로서의 아파트가 농촌에까지 보편화되는 현상은 이 지구상에서 한국만의 일이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와 특수한 경우를 빼고 일반적인 국가사회 최고 아파트가 주거의 보편현상, 그것도 농촌까지 고층아파트 주거형태가 전개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

1990년 처음 모스크바를 방문,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 제일 낮은 풍경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고층 아파트군이였다. 그러나 러시아도 고층아파트는 대도시만의 현상이었다. 한국의 전통, 한국에 영향을 미친 외국문화(미국·중국·일본)의 주류 그 어느 것에도 상관없는 아파트 주거문화는 어떤 이유로 한국에서는 주류주거문화가 되었을까.

1960년대 초인가, 마포에 처음 5~6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그것은 뽕밭의 관습이었을 뿐이었고 바로 관습 밖으로 밀려났었다. 1970년대 말 '현대아파트 사건'이란 것이 났지만 당초에는 팔리지 않아서 생긴 일, 요

한국은 '대 극적' 변화의 기적

세게최저의 출산율, OECD 최고의 자살률, 한국만이 존재하는 대학총장의 교수직선과 신문사 편집장직 직선제, 모든 국영기업과 은행 CEO의 공모제, 판사와 검사 그리고 이들과의 사관관계자나 사관관련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해도 비정상이 아닌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일반의 외국기도 대다수 판사나 대법관도 없었던 모임의 주제가 사라지는 화석문화, 세계 유일하게 주중·주말에 가정부와 여성들이 끝장판을 무는 여가문화. 이것은 변화나 성장이나 발전을 보여 기적이다. 단언하건, 인류역사 이래 최고의 기적이다. 이 기적은 무엇을 잉태하며 가는 기적일까.



金 鎭 炫
(시화54-58)
무엇보다도 연구자문위원장
前과학교육처 장관

다.
2세대 60년 동안에 서양의 눈으로는 최후의 변지, 또는 최후의 은둔국이었던 한반도의 남쪽이 45년 이후 독립한 1백40개 가까운 나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부분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 일본보다 앞선 '미래'현상 또는 과잉현상을 보이는 것은 어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곤혹스럽다. 우리가 '현재' 정상인 것처럼, 당연히 것처럼 생각하는 것 중에 비정상,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크리스천 전동국가 중 30%에 이른 크리스천 인구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은 1.5%, 한국보다 기독교전례가 훨씬 오래되었고 선교사의 잔취가 강했던 나라들도 10%의 크리스천을 가진 나라가 없다. 더구나 인구 4천9백만의 30%인 1천3백만의 크리스천들이 6천만의 크리스천을 가진 영국보다 배나 많은 1만3천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견하고 미국 2억8천만 크리스천이 6만4천명의 선교사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기적 중의 기적이고 돌출 중의 돌출이다.

한국의 대학교, 대학생 인구가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모든 선진국보다 많고, 이공계 대학생 수 역시 세계 2위이다(중국, 인도 제외). 미국에 유학 중인 최대 대학생이 한국이고 미국의 외국인교수 중 한국이 2위이다.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미디어의 수, 수도권집중과 도시화 비율,

서울大同會報

참역·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添
편집인 孫 一 瓚
편집주간 許 模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5-2 (121-812)
(당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림7동 24-2 연구동원 211호)
•전화: (02)7012-2233 팩스: (02)704-8358
•e-mail snua@korea.com

본지취임 金哲淳, 朴世熙, 林炳斗, 南仲九, 金鍾福, 李潤均, 宋丙洛, 安炳泰, 丘月泉, 安鍾福, 金好俊, 黃性禹, 李元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南, 李元龍, 金鍾龍, 文昌益,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愛, 姜大福, 嚴秉太, 金炳龍, 李安現, 尹在哲, 鄭昭浩, 李東福, 朴聖龍, 曹炳浩, 朴德俊, 許榮奎, 金浩浩, 鄭興實, 李東昌, 趙在福, 金鍾福, 李容式, 李相起, 鄭恩浩, 蔡基玉
편집장 安炳泰 편집부 기자 表賢模, 金南柱, 金京京 광고부장 金千鶴

“미래 향한 큰 꿈을 꾸는 전문가가 되길”

본회·단대동창회서 2백18명에 장학금 4억8천여만원 수여

본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1층 강당에서 2007년 1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모교 재학생 1백5명에게 2억6천2백63만9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기·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4면 참조)

이로써 각 단대동창회(원)동창회가 재학생 1백13명에게 2억1천7백86만15백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7년 1학기 장학금은 총 2백18명에게 4억8천49만9천5백원이 지급됐다.

본회 許 應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식사를 통해 “장학금발급과 학공을 위해 이곳 관악캠퍼스로 총동창회가 이전함에 따라 20년만에 모교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으로 동창회가 이사를 해 뜻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李長茂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또 장학생들에게 “나아 들어 시간을 허비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간을 아껴서 여러 분야로 시야를 넓혀 박식해지길



林光洙회장이 장학생들에게 시간을 아껴 시야를 넓히라고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이 장학금을 전했다.

특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조한 뒤 “남이 꿀 수 없는 큰 꿈을 꾸는 여려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격려사에서 “모교는 지금까지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할 인재육성을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연구·교육·사회봉사에 있어 세계적 수준을 선도하는 질적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있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에 동참해 이를 현실로 만드는 모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李善勳(법학 석사과정)군은 장학생을 대표해 “훌륭한 후배가 되어 그동안 산내 동문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국가와 모교에 환원하겠다”고 답사했다.

이어 모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崔榮成(성악01-05)동문과 2월 졸업생인 鄭基悅(성악00-07)·林秉赫(성악01-07)동문이어가 펠라로 가곡 ‘남촌’을 축하로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振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郭永勳·鄭道·李鍾基·鄭道煥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憲敏·鄭道基·申珪圭·安聖哲·金榮熙이사, 許 應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李長茂총장, 朱鍾南발간기금 상임이사 장학금 전달



孫一振상임부회장 장학금 수여



朱鍾南발간기금 상임이사 장학금 전달



洪性大특기장학금 수여



李鍾基특기장학금 수여



郭東憲특기장학금 수여



수학과특기장학금 수여



李元圭기금장학금 수여



吳應敏·秋景玉특기장학금 수여

朴亨根학생부처장, 수학과동창회 金永煥회장, 인천장학회 金壽熙이사장, 李元圭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일성 金壽熙서울지사장, 郭東憲변호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金鍾基고문, 가천의대 길병원 李孝義병원장, 드림위즈 李鍾振사장, 吳應敏·秋景玉특기장학회 秋景玉씨 등이 참석했다. (表)

각 단대동창회 장학금

▲생활대동창회(회장 鄭東熙)=3명:3백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俞敬子)=5명:3백50만원 ▲법대동창회(회장 李載厚)=34명:7천6백12만8천원 ▲시대동창회(회장 林善孝)=4명:9백6만4천원 ▲상대동창회(회장 洪龍澤)=35명:7천7백81만4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鄭英彰)=4명:9백85만4천5백원 ▲약대동창회(회장 李金鎔)=6명:7백만원 ▲음대동창회(회장 徐桂敏)=5명:5백만원 ▲치대동창회(회장 洪龍杓)=4명:1천2백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河河鳳)=4명:1천만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崔秉鎔)=9명:4백50만원

관악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정공·학년)

▲인문대 金顯宇(불문학 석사과정)·吳世炫(국사학 박사과정)·崔智賢(종교학 박사과정)·金得珠(국사학4)·成善淨(노문학2) ▲사회대 權太延(사회복지학 박사과정)·金榮植(경제학 박사과정)·李善勳(정치학 석사과정)·安寶美(외교학4)·金潤鎔(심리학3)·鄭恩英(사회학3) ▲자연대 張潤秀(수리과학3)·沈美敏(통계학3) ▲간호대 金世래(간호3) ▲경영대 趙政賢(경영 박사과정)·金政賢(경영3) ▲공대 金榮榮(조선해양공학4)·金炫坤(기계항공공학4)·金鍾赫(컴퓨터공학3)·柳義雄(전기공학3)·任致旌(산업공학4)·朴志訓(지구환경사설2) ▲농생대 趙相杓(농생명공학 석사과정)·朴善孝(식물생산과학4)·李振振(농경사회학4) ▲미대 金聖珍(디자인학 석사과정)·曹連浩(디자인학3) ▲법대 權賢我(법학 박사과정)·李智勳(법학 석사과정)·趙宰均(법학3) ▲사대 金成俊(영어교육 석사과정)·金銀珍(교육학 석사과정)·李善熙(국어교육 석사과정)·金順澤(체육교육3)·申圭浩(영어교육3)·安賢煥(수학교육4) ▲생활대 李은혜(소비자교육학3) ▲수의대 金明所(수의학3) ▲약대 崔源(약학2) ▲음대 朴智賢(작곡3) ▲의대 李俊求(의학4)·金宇善(의학3) ▲치대 朴鍾娟(치의학4) ▲행대원 金正福(행정학 박사과정) ▲한대원 李榮(조경학 박사과정)

2007년 1학기 특지·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금 후원순)

장학금	설립자	수혜자	장학금
洪性大특지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신산학원 이사장 관악회 상임이사	林炳源(법학42년)	3,000,000
		崔允佐(컴퓨터공학1년)	3,000,000
		姜相은(영문학과2년)	3,000,000
		朴寶順(사회과학1년)	3,000,000
亞南특지	金性津(법학54입) 영국테크노로지코리아 회장	宋소라(국어교육1년)	3,000,000
		金泰君(생명과학4년)	2,885,000
		金所雅(외교학4년)	2,413,000
		李海龍(사회과학2년)	2,465,000
李吉女특지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	金世英(사회과학1년)	2,779,000
		金錫昌(사회과학1년)	2,779,000
		鄭秀然(식품영양1년)	2,759,000
		崔允佐(컴퓨터공학1년)	3,126,000
吳東英·金寶淑특지	吳東英(조선학공54입) 한국과학기(금원) 명예교수 부인 金寶淑(치의학6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鄭善彬(화학생물1년)	3,126,000
		朴允佐(사회과학1년)	3,000,000
		沈寶賢(치의학영2년)	3,000,000
		金來賓(치의학영2년)	3,000,000
張世一특지	張世一(전기공학59-63) (주)일성 회장	朴炫珠(치의학4년)	3,000,000
		朴炫珠(치의학4년)	3,000,000
		朴炫珠(치의학4년)	3,000,000
		朴炫珠(치의학4년)	3,000,000
朴柱輝특지	朴柱輝(무역학69-74) 중국 수산기계 총재	崔允佐(국제대학원1년)	3,079,000
		崔允佐(국제대학원1년)	3,079,000
		崔允佐(국제대학원1년)	3,079,000
		崔允佐(국제대학원1년)	3,079,000
楊錫榮특지	故 楊錫榮(간호51-54) 前대한간협 자정위원장	吳知英(간호학2년)	2,000,000
		吳知英(간호학2년)	2,000,000
		吳知英(간호학2년)	2,000,000
		吳知英(간호학2년)	2,000,000
鄭八道·李錫仲특지	鄭八道(AMP 171) 코리아엔드림파너 회장 부인 李錫仲이사	鄭宇福(경영학4년)	1,854,000
		金錫民(경영학4년)	2,213,000
		張正源(재료공학1년)	3,126,000
		張正源(재료공학1년)	3,126,000
李道博·李錫仲특지	李道博(농학65-63) 부평문화재단 이사장 이들 李錫仲(기계공학84-89) 도원부지 사장	李承淵(조선학영2년)	1,000,000
		李承淵(조선학영2년)	1,000,000
		李承淵(조선학영2년)	1,000,000
		李承淵(조선학영2년)	1,000,000
李達基특지	李達基(경영학69-73) 삼영무역 사장	金受士(법학4년)	2,213,000
		黃文泰(경영학4년)	2,265,000
		朴成奎(기계공학 석사)	2,000,000
		鄭錫珠(컴퓨터공학 석사)	2,000,000
鄭錫圭특지	鄭錫圭(화학공학48-52)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金受士(법학4년)	2,213,000
		黃文泰(경영학4년)	2,265,000
		朴成奎(기계공학 석사)	2,000,000
		鄭錫珠(컴퓨터공학 석사)	2,000,000
化學科특지	최희관회장	李錫仲(화학4년)	2,685,000
		李錫仲(화학4년)	2,685,000
		李錫仲(화학4년)	2,685,000
		李錫仲(화학4년)	2,685,000
金秉熙·李忠誠특지	金秉熙(AMP 471) 한국기아 이사 이들 李忠誠(의학77-83) 모교 의대 행정학과 교수	李錫仲(법학4년)	1,000,000
		李錫仲(법학4년)	1,000,000
		李錫仲(법학4년)	1,000,000
		李錫仲(법학4년)	1,000,000
孫致武특지	故 孫致武(대우원70졸) 前모교 시절학과 명예교수	金相奎(지구환경4년)	1,500,000
		李政宰(지구환경4년)	1,500,000
		李政宰(지구환경4년)	1,500,000
		李政宰(지구환경4년)	1,500,000
朴光洙특지	朴光洙(기계공학48-52) 일명테크 회장	李政宰(지구환경4년)	1,500,000
		李政宰(지구환경4년)	1,500,000
		李政宰(지구환경4년)	1,500,000
		李政宰(지구환경4년)	1,500,000
吳仁錫특지	吳仁錫(행정학58-62) Philic Investment 회장	李東奎(경제학4년)	2,213,000
		李東奎(경제학4년)	2,213,000
		李東奎(경제학4년)	2,213,000
		李東奎(경제학4년)	2,213,000
安聖熙·孫致武특지	安聖熙(행정58-63) 유니테크 회장 부인 孫致武이사	李錫仲(법학2년)	1,906,000
		李錫仲(법학2년)	1,906,000
		李錫仲(법학2년)	1,906,000
		李錫仲(법학2년)	1,906,000
鄭志勳특지	鄭志勳(화학공학72-78) 오리아 이스트아시아 회장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郭永錫특지	郭永錫(토목공학56-60) 도화종합기(금원) 회장	金受士(법학4년)	3,354,000
		沈煥大(건축학2년)	2,710,000
		沈煥大(건축학2년)	2,710,000
		沈煥大(건축학2년)	2,710,000
李海運특지	李海運(행정학51-55) 한국우익회 회장	金弘道(법학2년)	1,800,000
		金弘道(법학2년)	1,800,000
		金弘道(법학2년)	1,800,000
		金弘道(법학2년)	1,800,000
明泰銘특지	明泰銘(기계공학46-50) 前충원기업 대표	金錫仲(기계공학4년)	1,800,000
		金錫仲(기계공학4년)	1,800,000
		金錫仲(기계공학4년)	1,800,000
		金錫仲(기계공학4년)	1,800,000
牧父子특지	故 金錫仲(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장남	金錫仲(법학4년)	2,213,000
		金錫仲(법학4년)	2,213,000
		金錫仲(법학4년)	2,213,000
		金錫仲(법학4년)	2,213,000
張錫李특지	張錫李(토목공학46-50) 삼양정수공업 회장	徐斗源(지구환경2년)	2,774,000
		徐斗源(지구환경2년)	2,774,000
		徐斗源(지구환경2년)	2,774,000
		徐斗源(지구환경2년)	2,774,000
李元基특지	李元基(농생물학68-83) 한산시(세) 도봉구 회수회장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郭東奎특지	郭東奎(법학61-65) 변호사	金泰君(생명과학4년)	2,885,000
		金泰君(생명과학4년)	2,885,000
		金泰君(생명과학4년)	2,885,000
		金泰君(생명과학4년)	2,885,000
鄭錫圭특지	수학과학회장	金正源(수리과학4년)	1,000,000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金錫仲(수리과학4년)	1,000,000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金錫圭특지	金錫圭(경제68-70) 안전상학회 이사장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義錫圭특지	義錫圭(의학48-52) 용이제약 회장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李忠誠(수리과학4년)	1,000,000
吳東熙·秋東福특지	吳東熙(삼우공학77-71) 前법제처·법원법무지 대표 부인 秋東福이사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朴錫吉(화학생물3년)	2,710,000
그린 기금	농대 그린장학회	金錫仲(식품생물4년)	1,000,000
		金錫仲(식품생물4년)	1,000,000
		金錫仲(식품생물4년)	1,000,000
		金錫仲(식품생물4년)	1,000,000

해외지부, 건립기금 정성 잇달아

재미 李典九·李來源동문 기금 쾌척



李典九동문



李來源동문

지난 1월 21일 워싱턴DC에 본
부가 있는 재미동창회 관악후원회
李來源(화학공학58-62)부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6천
달러를 보내왔다.
또 지난 2월 13일 재미동창회

李典九(임학60-64 뉴욕팔트센터
사장)수석부회장이 장학빌딩 건
립기금으로 5백만달러를 추가로 출
연함에 따라 '李典九기금장학회'
명의로 총 1천만원의 기금을 운영
하게 됐다.

金正範장학 1천60만원

지난 2월 22일 金正範(치의학
60-66)치과의원장이 본회 장학빌
딩 건립기금으로 1천60만달러를 출
연했다.

金동문은 개인 명의의 '기금장
학회'를 설립해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으로 재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
이다.

상과대학동창회

장학금 8천8백여만원 수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錫鎰)
는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나하하우스에서 2007년 1
학기 장학금 수여식 및 최우수 졸
업·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과동창회는 연건재단 장
학금을 포함해 경영학과 및 경제
학과 재학생 40명에게 총 8천8백
98만3천원을 전달했다. 또 최우
수 졸업자로 경영학과 정성용(학
점 4.12)군과 경제학부 이준환

(4.13)군을 선정했으며, 경영학
과 김준비 양이 'GE의 핵심인재
육성전략', 경제학부 윤환준 군이
'대학교수 정년보장제에 대한 경
제학적 분석'이란 논문으로 최우
수 졸업 논문상을 수상했다. 그밖
에 올해부터 대학원 학술연구비가
확정돼 경영대학 대학원과 경제학
부 대학원에 각각 1천만달러를 지원
했다.
경영대 郭守衡학장은 장학생들

에게 "출연하는 선배들의 마음을
깊이 읽고 편지나 안부전화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꼭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장학금을 출연해준 동문은
洪錫鎰회장을 비롯해 金正範(경
제52-56)·李鍾衍(경제52-56)·
金榮奎(경제55-59)·池昌福(경
제55-59)·曹甲周(경제58-63)·
洪性田(상학58-64)·朴容福(경
제59-65)·崔昌泰(경제60-64)·
鄭路泳(경제61-66)·李壽昌(경
제61-65)·俞錫茂(상학62-66)·
金鍾郁(무역63-70)·金東寧(경
제64-68)·金然培(경제64-68)·
朴魯成(경영64-68)·朴哲遠(상
학64-68)·沈載寅(상학64-68)·
李榮一(64-73)·金正泰(상학66-
70)·成善鶴(무역66-70)·吳世煥
(무역68-72)·南 鐘(경제69-
76)·李鍾基(경영69-73)·李鍾烈
(경영69-73)·全相福(경영70-
74)·鄭夢準(경제70-75)·文大源
(경영71-75)·安秉台(경영71-
75)·李載日(경영73-77)·金殷相
(경영74-78)·金大鉉(경제75-
79)·權聖奎(경영79-83)·金炳五
(경영83-87)·田賢秀(경영83-
87)등 동문이다.

2007년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6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2007년 3월 16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① 제9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 사업계획 보고
③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없음.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49차-관악회 99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
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언론인회 2대 회장에 南仲九동문 추대

MBC 嚴基永특임이사 '언론인 대상' 수상

관악언론인회(회장 직무대행 南仲九)는 지난 2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현직 동문 언론인 2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가총회 및 제4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俞義龍(나이85-89 연세대 전임 강사)前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회장평화재단 南仲九(정치58-64 본보 논설위원)이사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감사에 SBS 安國正(사학63-70)사장과 모교 朴明珍(분문65-69)중앙도서관장을 재선임했으며, 다른 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嚴基永동문, 본회에 부상 1천만원 쾌척

신임 南仲九회장은 "그동안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제 할 일을 다 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내실을 기해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취임 인사 요지 참조)

이어 2003년부터 관악언론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安樂勳(행정57-61 본회 부회장)전임 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제4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MBC 嚴基永(사회70-74)특임 이사가 수상했으며, 嚴이사가 특석에서 부상으로 받은 1천만원을 본회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출연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회 鄭鍾大위원장은 "매인뉴스 앵커를 몇 년 하다 정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嚴基永동문은 정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한국방송사상 최장수 앵커이자 33년간 언론인의 자리를 굳게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 저널리즘



좌로부터 安樂勳·南仲九·嚴基永·林光洙·李長茂·劉載天동문

의 수준을 높이는 이노베이션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嚴基永동문은 기자수첩에 백백이 적어온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 서울대 언론인들이 좀더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 사회에 특히 모자라는 'tolerance'를 보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뉴스를 진행하느라 저녁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가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복이 많아 잠시 멈춰있기도 했다. (수상 소감 요지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모교의 전환기에 취임하신 李長茂총장께서는 세계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법학과 등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 등으로 고심하며 이를 뒷받침할 발전기금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언론인 내지 크트 모교와 총동창회 그리고 관악언론인회가 하나가 되어 모교의 발전에 큰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축사 요지 참조)

모교 李長茂총장은 "우리 관악언론인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물론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대 南時旭(정치54-58 前 문화일보 사장)석좌교수의 건배 제의에 이어 열린 축하공연에서 SBS로트랙진 金正澤(기약69-74)예능단장이 뛰어난 피아노 연



嚴基永이 1천만원 전달



SBS 金正澤단장 축하공연



朴正旭씨 배명이웃 열창

주실력으로 'If you love me'와 'Romance' 등을 선보였다.

또 중요영양문화재 29호 서도소리 예능이수자인 朴正旭씨가 '배명이웃' 헌바탕을 열었다.

한편 이날 관악언론인회에서 준비한 PDP TV, MP3, USB메모리 등을 참석자들에게 경품으로 나눠줬다. (表)

본회 林光洙회장 축사 (요지)

먼저, 오늘 관악언론인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南仲九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 후 모교의 발전과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관악언론인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위위원장으로 이 모임의 탄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신 南회장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관악언론인회 출범은 너무나 보람있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관악언론인회가 창립될 이래로 2천7백여 언론인 동문들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조직의 기틀을 마련해 폐교론, 논술고사 등 모교가 어려운 때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헌신해 오신 安樂勳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南회장께서 관악언론인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30만 서울대 동문을 대표해서 부탁하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정하는 동문 언론인 여러분! 언론의 힘은 큼니다. 그 선두에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이 있습니다. 모교와 총동창회, 그리고 관악언론인회가 하나가 되어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李長茂 총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교의 전환기에 취임하신 李長茂총장께서 세계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고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발전기금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조사하고 계십니다. 李총장께 고마움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南仲九회장 취임 인사 (요지)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평영이지만 능력에 비해 과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일단 맡은 이상,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힘닿는 데까지 우리 관악언론인회가 좋은 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악언론인회 올해로 벌써 출범 4주년을 맞습니다. 내실을 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安樂勳전임회장에서 마련해 놓으신 토대 위에, 동문 언론인 주소록과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동문 언론인끼리 자주 만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나라의 언론창달과 사회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관악언론인회가 되도록 힘써하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은 무려 2천7백여 명에 이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만큼, 언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책임 또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 언론종교가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언론외적 요인이 크다고는 해도 그동안 과언의 우리가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저는 회장이라는 존책을 맡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관악언론을 활성화시켜 충실을 기하고, 둘째 서울대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셋째 '모교의 발전이 곧 조국의 발전'임을 염두에 두고 모교의 발전에도 힘을 보태는 그런 관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면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이런 총회자리 같은 데 그 차 왕립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嚴基永특임이사 수상 소감 (요지)

저는 그저 이 격동의 한국사회에서 좋어서 기지를 썼고, 때로는 내외의 유혹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기지라는 것을 고집했고, 몸과 공기와도 같은 방송을 좀 더 잘 만들 수는 없을까, 좀 더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공평한 장을 넓히고 전방의 자원을 더 넓힐 수는 없을까, 그것을 아주 조금 힘써주고 고맙게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리대 사회학과 70학번입니다. 저를 언론인으로 한평생 방황을 전개 해온 것은 대학 2학

년 때 문리대 잡지 '形成'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리대 학우들로부터 등록을 받을 때 별도로 3백원 내지 5백원을 받아 1년에 네 번 계간으로 내도록 돼있었습니다만, 유신체제 아래서 저허가 모은 원고는 위험한 기 적이 없는 것이었고 불려진 채소스에 맡겼다가 마중에 압수되기를 여러 차례였습니다.

동아·조선 시대 이후 1974년 MBC 수습기자로 경향신문에 입사했을 때입니다. 그때 10명의

기자를 뽑아 반반씩 문화방송, 경향신문으로 나눠서 가라졌는데 방송 쪽을 지원했던 사람은 문과로 吳兌鎭동문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서는 블루오션(Blue Ocean)이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이 모두 방송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제로 방송으로 오게 됐습니다만, 이 같은 방송지원 기피사태는 그 뒤로 갈바로 국면이 바뀌어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지나가면, 한 20년 지나가면 방송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 때배 시대 그리고 인터넷시대에 와

서는 그 사정이 예전과 매우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 엄청난 기술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 앞에 특한 지상과 방송은 힘겨운 응전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쪽으로 가게 되면 죽는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들이 방송도 약간 주춧돌이 되고, 중앙언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방송도 어느덧 레드오션(Red Ocean)으로 빠지고 마는 아입니다. 이 거센 시대의 변화에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좀 더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특

히 모자라는 톨러런스(tolerance)와도 관계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대 언론인들이 계속 교육받아가야 할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특히 방송은 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인상이 젊게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배와 후배, 그 사이 격의 없는 부딪침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생생한 뉴스를 후배기자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년이 이렇게 기록을 세우는 연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제 아내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약학대학동창회

동창회 발전 기여한 17명 시상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金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표창과 신입 회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약대동창회 李禮植 명예회장·李金器회장, 여동문회 權善珠회장, 모교 李承基회장, 대한약사회 元龍熙회장, 이화여대·성균관대를 비롯한 6개 대학 약대동창회장 등 1백70여 명이 참

석해 성황을 이뤘다.

본회 林光洙회장이 지난해 약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 안인으로 도움을 준 동방약품 朴鍾虎(약학52-56)전부, 삼천당 제약 金相奎(약학54-58)대표, 세양 朴浚郁(약학55-59)대표, 여동문회 金順子(약학57-61)감사, 신보영약국 柳順愛(약학57-61)대표, 孫善一(약학59-64)前동창회 부회장에 총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좌로부터 李承基·林光洙·李禮植·李金器·孫一根·李海政 등문

또 李金器회장이 17회 동기회 金炳炬(약학59-63)회장, 이화여대 金圭洙(약학60-65)교수, 사노파·이벤타스코리아 朴秀一(약학65-69)전부, 메디팜인화약

金植鎔(제약68-72)대표, 여동문회 李聖熙(약학69-73)운영위원, 청계약품 朴英雨(제약70-74)대표, 디에스팜약국 金一奉(약학71-75)대표, 여동문의 林源熙(약학

71-75)총부, LG생활건강기술 張錫胤(약학79-83)상무, 세일국제 특허법률사무소 崔誠實(약학83-87)변리사, 식품의약품안전청 李慈燕(제약96-00)사무관에게 약학대학 동창회장 표창상을 전달했다. 이어 강남구약사회 高元奎(제약96-90)회장에게 축하메달을 수여했으며 재학생 6명에게 장학금 7백만원을 전달했다.

동창회는 올해 8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학금 지원, 회보발간(연4회), 테니스대회(4월), 바둑대회(6월), 약초원교섭(5월·9월), 동문자녀 재입학 장학금(8월), 동창의 날 축제(10월)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좌로부터 金炳道·孫京植·沈甲輔·朴永寬·李龜澤·金光石 등문

AMP동창회

沈甲輔·朴永寬·李龜澤 등문 대상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2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6회 AMP대상 시상식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AMP대상 수상자로 삼익 TTK 沈甲輔(3기)부회장, 세정병원 朴永寬(29기·의학58-64)이사장, 포스코 李龜澤(31기·금속공학64-69)회장을 선정해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沈甲輔부회장은 36년간 전문경영자로 근무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영세기업을 중견 상장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朴永寬이사장은 1981년 쿠네 유일의 심장·혈관 전문병원을 설립해 심장수술의 역사를 한 단계 앞당겼을 뿐 아니라 국내외 심장병 환자들에게 무관심술을 제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또 李龜澤회장은 포스코 공제기로서 37년간 근무하며 포스코가 국가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이 세계 5위권의 철강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金光石회장은 "해가 갈수록 AMP대상의 권위가 높아져 올해는 2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며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업적과 행적을 통해 AMP등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孫京植 명예회장, 朴浚郁 대표, 趙政男 수석부회장, 鄭八道·李東俊·朴在甲 부회장, 朴聖姬 전경간사, 林香亭 대동창회장 등 3백여 동문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AMP동창회는 지난 1975년 출범해 현재 3천9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과대학동창회

洪澤裕 등문 합춘기성 획득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가 지난 2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 합춘회관 3관에서 개최한 제24회 회원친선 바둑대회에서 洪澤裕(73-79)등문이 합춘기성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국기원 高在熙(7단)사범 주판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는 총 29명이 참가해 A조(1~2급), B조(3~4급), C조(5급 이하)로 나뉘어 진행됐다.

토너먼트로 승자를 거둔 A조에서 洪澤裕등문이 柳丁珍(86-91)등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A·B조는 魏在勳(52-58)·李甲孝(55-61)등문이 각각 1위에 올랐다.

본 대회에 앞서 진행된 '바둑 퀴즈대회'에서 李毅興(57-61)등문 등 6명이 퀴즈상을 받기도 했다.

ACMP동창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언

건설산업최고전력과정동창회(회장 李龜澤)는 지난 2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룸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南仁熙(토목공학77졸)청장이 초빙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현황과 향후추진계획'에 관한 특강을 펼쳤다.

동창회는 마일 건설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동문간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ROTC동문회

세계 名將 캘린더 배포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는 지난 2월 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신년 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朴在鎔(1기·회화59-63)·李敬在(2기·사회60-64)·洪澤昊(4기·철학62-66)·洪宗浩(4기·사회62-66) 등문, ROTC중앙회 임춘선 사무총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梁在鉉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은 1년의 임기동안에도 기부금이 아닌 회비만으로 운영할 예

정이며, 재미있는 기획과 프로그램이 가득한 동문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발간한 2007년 리더십 캘린더를 소개하고 캘린더에 담긴 이춘선, 맥아더, 나폴레옹 등 세계의 名將 12인의 선정이유와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동문회 운영과 번창을 위해 출간된 리더십 캘린더의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다.

리더십 캘린더는 초판이 하루만에 매진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동문회 기금으로 편입해 예정이다. 2008년 이후에도 세계의 환경·경영·정치 등 각 분야별 리더십 캘린더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동문회는 오는 9월 15일 출격명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원임학동문회

'산림과학 1백년사' 발간

수원임학동문회(회장 鄭錫漢)는 지난 2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1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겸 '산림과학 1백년사' 발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산림과학 1백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농생대동창회 韓仁圭회장은 축사를 통해 "임학동문들의 나무 사랑, 모교 사랑이 이렇게 훌륭히 산림과학 1백년사 책자로 나타났 것 같다"며 "이 나라 산림을 훌륭하게 가꾸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학자를 배출한 것을 농생대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식행사 후 1백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1억6천여 만원을 후원해준 동문 3백37명의 명단을 동문에 새겨 산림자원학부 세미나실에 거는 헌관식을 갖기도 했다.

동문회는 오는 4월 경기도 광주 모교 대화산 학술원에서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南)

등문 작품 자상 전시회



元 妙 喜 作 '산', 아크릴릭, 87×85cm, 2006.

<작가말백>

- 59~63년 모교 조소과 졸업
- 아세아 미술인 초대전, 서울 조각전, 여류조각전, 한국미술전, 훈화회전, 한국·인도 교류전
- 현재 한국미술협회·서울조각회·율호미술회 회원

회장이 바뀌었어요

천안지부동창회

金相斌회장 선출

천안지부동창회(회장 金明俊)는 지난 1월 30일 천안시내 곰마루에서 정기총회 및 金明俊회장 송별회를 개최했다.

金明俊회장은 임에서 “후임 회장에서 동문들을 규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相斌(익산54-58)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사무총장에 차창禧(봉곡회63-67)동문, 총무에 曹永熙(화곡



학76-80)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천안시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한 신임 金相斌회장은 “우선 회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락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부동창회

새 회장에 李鍾漢동문

포항지부동창회(회장 洪福福)는 지난 1월 30일 포항시내 영일

대에서 신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鍾漢(화곡62-69)상근부회장(인터뷰 참조)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李회장은 취임사에서 “연락이 가능한 포항지역 회원 수가 5백명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로 참여하는 동문이 많지 않다”며 “오랫동안 거주해온 동문들과 전·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동문들이 격의없이 유익한 정보공유할 수 있도록 ‘7080모임’을 활성화시켜야겠다”고 밝혔다.

바둑모임 시상식에 이어 포항지역 출신자 중 모교에 합격한 43명의 신입생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 참석자 전원에게 지난 2004년 이후 업데이트된 회원명부를 배부했다.



좌로부터 洪禮約·梁源植·金顯堂·林昌濟등은, 한 명 건너 白純之등은

치과대학동창회

洪禮約회장 선임

치과대학동창회(회장 白純之)는 지난 2월 13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에서 정기총회(사진)를 열고 새 회장에 홍예표치과의원 洪禮約(65-71)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洪禮約회장은 “모교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모교·병원과 동문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 개선에 앞서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을 열고 金顯堂(60-66)강북구청장, 울산대 화학생명과학부 權炳世(65-72)석좌교수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동창회는 모교 강당보수비용으로 1억5천여 만원을 모아 이날 치과대학 金鍾柱(71-77)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영동지부동창회 洪東善공동회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명예회장)

지난해 12월 영동지부동창회를 이끌어 갈 신임 공동회장에 洪東善(익산56-6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명예회장)·安任珠(영교교육65-69 관동대 교수)동문을 선임했다. 영동지부는 강릉·속초·주문진·동해까지 이루고 있으나 현재 강릉지역 동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洪회장은 “인문학을 전공한 安회장께서는 문화적 소양이 풍부하고 직구적인 성격으로 평소 존경해온 분으로, 자연과학도인 저와 함께 각자의 전공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 공동회장제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참패와 있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고, 진취적인 남성적 기질과 섬세



계획하고 있으니 부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문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동창회 재건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문들의 소망과 의지를 결집해 참여·만남·현신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하겠습니다.”

— 평창에 모교 동생대 연구실이 들어설 예정인데.

“20세기 한국농업의 메카가 수확이었다면 21세기는 이삭 강원도 평창이 새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 동문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동창회 재건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문들의 소망과 의지를 결집해 참여·만남·현신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하겠습니다.”

— 평창에 모교 동생대 연구실이 들어설 예정인데.

“20세기 한국농업의 메카가 수확이었다면 21세기는 이삭 강원도 평창이 새로운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포항지부동창회 李鍾漢회장 (前포항지부 상근부회장)

“많은 동문들이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지. 회원현황을 다시 파악해 단체·학과·별 모임의 대표들을 임원회의에 자주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다보니 후배들과 함께 일하면 힘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 설립한 ‘7080모임’을 활성화시켜 동창의식을 심어주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 올해도 신입생을 많이 배출했지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엔 1백명 가까운 학생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최근에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화시대에 자기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진 탓이겠지요. 신입생 현황에 때 매번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대에 따라 변해더군요. 아날로그에서 지금은 디지털시대에 맞는

“5월 야유회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한 여성회장이장을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동회장제도를 모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표담임장을, 安회장은 인사담임장을 각각 맡을 계획입니다.”

— 동창회장의 인연은.

“장미당시 회장을 비롯으로 姜善錫전임회장은 출구, 저는 본래동창회 부회장으로서 함께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姜善錫동문이 회장으로 있을 때는 강릉으로 강릉 경실련과 생명의 숲 국민운동 대표를 맡아 동문들을 규합하고 어려웠던 살림을 뒷바라지하는 등 역대 회장님들과 오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

“4 번째 대표들을 초청한 룻기별 야유회를 열고, 7월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작성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몇 년간 송년모임 외에는 큰 행사가 없어 5월에 야유회도

농업생방공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청정고원지역인 이곳에는 국립고령치 시험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감자원 종양, 허브나라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교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FTA협정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경손과 나눈 정으로, 젊은 동문들은 앞장서 뛰고 선배들은 뒤에서 밀며 한 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년간 유기농업 연구개발에 헌신해온 洪회장은 강릉신문협동조합 이사장, 강릉한살림생활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강릉생명의 숲 국민운동 초대 공동대표, 강릉교도소 독자방문위원·종교지도위원 등을 역임했다.

“총동창회장 초청 행사·음악회 계획”

간직 여유가 있다 보니 계속 사색준거조, 제 전공이 ‘물질관리관리’로서 선우배외의 인간관계를 중시 여기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모습을 보고 믿고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 모임은 활발한 편이지.

“총무시절에는 회원명부를 받고 격달로 모이는 임원회의도 한 됐어요. 등·말·골프·바둑대회와 직정면 모임도 활발했는데, 지금은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5백명의 회원 가운데 포항출신 동문이 50명 남짓 되다보니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또 서울과는 달리 단순 친목이나 정보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불우하고 서울대 출신이 풍전단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까봐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인기더라고요. 앞으로 모교가 좀 더 기초학문분야를 강화시켜 탄탄한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 그동안 총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셨는지.

“이제부터 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꾸로 총동창회장님을 초청해 좋은 말씀도 듣고, 이곳 동문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李회장은 지난 2월 26일 오후에 모교 관악캠퍼스를 찾았다. 차주 李成植(농산전교육97-02)동문이 박사학위를 받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자신의 딸이 오랫동안 한 분야에 정성을 쏟으며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李회장도 새로운 각오로 동창회를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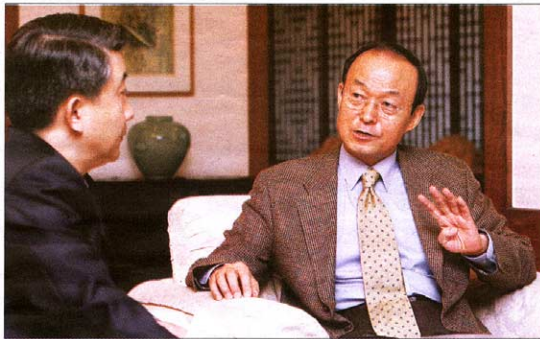
한반도 비핵화·남북관계 진전·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점

동문을 찾아서

외교통상부 宋 旻 淳장관

지난 2월 25일 일요일 오후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에 도착했을 때도 宋旻淳(독어독문68-75)장관은 회의 중이었다.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휴일도 없는 듯 했다. 그런 와중에 특별한 동창회보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고 서면으로 미리 보내 질문지에는 자필로 깨알같이 답변을 써넣어 돌려주는 자상함까지 보여주었다.

동문들이 보는 신문인 대다 수는 남인민군 개주할한 옷차림으로 시를 찍는 게 흥을 것 같다는 본보 李五峰는 설위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노타이로 한다는 것은 예외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풀었던 넥타이를 다시 매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대답 : 본보 李五峰는설위원(동아일보 논설위원)

— 최근 유류순방 중 한 동포간담회에서 盧武鉉대통령이 宋장관을 6자회담 타결에 공이 크다고 칭찬했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한마디로 겸연쩍었죠(웃음). 청와대 안보실장·외교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토록 엄밀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참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 차관보에서 장관으로 올라가셨을 때 대통령께 코드가 있어서 탈퇴했다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대통령과는 개인적 연이 전혀 없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 청와대 참모를 거치면서 드러난 정의와 외교 안보문제에 대한 시각과 철학 등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것과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코드라면 코드겠지요.”

현 상황에서 盧武鉉대통령이 갖고 있는 외교·안보분야의 비전이나 철학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미 동맹만 해도 미래의 한미 양국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에 대한 합의도 우리만 원해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안보 구조, 즉 군사적 패권을 조정하는 큰 틀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군대를 통제하면서 미국과 동맹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건장한 관계입니다. 스스로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미국에 짐이 됩니다. 한·미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봐도 이 친구가 길을 수 있고 뿔 수 있어야지, 한 사람이 평생 손을 잡아 주어야만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파타티가 아니라 짐인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8위의 군사력을 갖고 2백60억 달러의

군사비를 사용하면서 자기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평화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90년대 말 체네바에서 있었던 한반도 4자 평화회담에 차세대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군비통제도 하고 자기 군대를 자기가 운영할 수 있어야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군대도 통제를 못하는 상태와 (북한이) 군비통제 협상을

회가 안 된 상황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없고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비핵화도 진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보적 이유, 핵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려는 경제적 이유, 세 번째가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맨 마지막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제적 문제는 우리가 중유 등 경제 지원을 통해서, 안보적 문제는 그들이 핵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노력하면 폐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장치가 평화체제입니다. 체제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핵만 폐기하려는 것은 비현실적

인 접근입니다.”

—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우리 정부가 반미감정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미끼가 있습니다.

“외교관은 국가이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교관이 어떤 나라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외교는 화와 평을 쓰는 것입니다.”

—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외교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이 세 가지에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FTA의 균형 있는 타결과 재외국민의 보호 편익, 안정화가 넘치는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외교 조직개편과 인력강화에

힘을 계속합니다.”

— 지난 2월 6자 회담의 성과를 두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인 데요.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 채택이후 최초의 구체적인 이행합의입니다. 향후 공동성명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 회담 합의문의 특징은 북한의 조치와 상응조치를 연계, '성과가 있는 만큼만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북한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지원도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가 6개국 간의 약속인 만큼 이를 어기는 데 대한 북한의 부담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에는 60일 내에 영변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관을 복귀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 계획을 완전 신고하고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 봉쇄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상응해 중유 95만톤 상당의 대북 경제 여타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죠.”

불편 앞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초기 조치를 과연 이행할지 회의적으로 보면서 소극적 태도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의지를 맡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통해 금번 합의가 신속·완전히 이행돼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설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 6자 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업은 없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문은 열어 놓고 있지만 정상회담은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주자·농업분야 등에서 민감한 문제들은 추가 협상을 요합니다만, 양측의 협상 타결 의지가 확고하고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융통성을 보인다면 3월 말까지 타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미국 비자 면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언제쯤 비자없이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나라의 비자거부율이 3%미만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비자거부율(3%미만) 조건을 완화하고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역시 VWP의 가입 조건으로 보강될 전자 여권 발급을 위한 제반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지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전의 양면”

외교관 채용 경로 다양하게 열어 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분이 있어도 평화체제 협상도 가능한 것이죠. 작전통제권도 그런 선상에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문제를 다른 나라들이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 자신 이런 문제의식이 외교관 초년병 때부터 강한 편이었죠.”

— 그런 '자주의식' 때문에 코드 얘기가 나온 듯 싶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른바 평화체제 이행에 비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아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들이 가능할지요.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을 보면 한 면과 다른 면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핵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인정미 넘치는 영사서비스 제공하겠다”

☑ 앞가 무비자로 미국 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비자 신청서를 세심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서류를 첨부하면 비자 거부율도 지금의 약 3.5% 선에서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에는 VWP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해외동포, 해외여행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외교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영사 민원서비스 등 폭증하는 외교업무 수요에도 불구하고 외교 인력과 예산 등 외교 인프라는 10여 년 전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인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정보에 대한 허박한 현지인력을 활용하는 등 현지 인력 채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여행객 방문이 많은 세계 50개 지역에 ‘영사협력관’을 두어 제의 국민과 여행객 보호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 장관이란 직책이 주는 보람과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본인이 우선순위를 부여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안보구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후세에게, 국제사회에서 보다 담담하고 바람직한 국가를 물려주는데 실질적 기여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로절이란 개인의 자유가 거의 없고 늘 시간에 쫓긴다는 점이었죠.”

—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조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전 중의 하나가 외교 역량강화인데, 말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등산을 하더라도 만들어진 길로 가기가 싫어요. 옆으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해외 나가서도 비탈밭만 있으면 뛰어 들지요.”

— 중·고교시절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독일 문학과 관심이 많아서 독문을 전공하게 되신 건가요.

“고교시절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매력을 느꼈던 장래 직업에 대한 의지보다는 뭔가 새로운 영역을 찾는데 더 많은 의욕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향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고향이 어디지요.

“경남 진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양. 학창시절은 마산에서 보냈습니다.”

— 외무고시를 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춘천에서 현안법으로 군복무할 때 ‘왜 헌장 정의력과 의욕을 갖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할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3년씩이나 병역에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외교를 통해 우리의 안보환경을 개선해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복학 후 외무고시를 준비해서 졸업과 함께 외교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 독문학을 전공해서 외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시 문리대에서 독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학, 법학 등 다양한 과목의 강의나 서적을 읽었던 것이 외교관 생활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독문학의 실존주의면서 계몽적인 요소들이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학창시절 영향을 받은 은사님이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姜斗植·池明熙교수의 넉넉한 인생 가르침이 거의 속에 녹아 있습니다. 졸업 후 자주 뵈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 동아일보 사장이신 金學俊교수의 정치철학 강의도 당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카프카의 ‘城’을 희곡화해 고향 마산에서 연극 공연을 한 것이 오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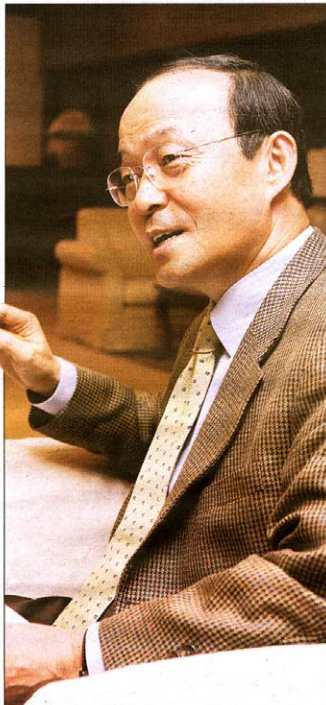
— 당시 김영길 게 읽은 독문학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시죠.

“‘외에서도 잠깐 언급한 카프카의 ‘성’입니다. 카프카의 소설이 난해하잖아요. 많은 해석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소설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 안에 서면 인간은 굉장히 외소해집니다. 과거에 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관청입니다. 성 안에 서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대민 부서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을 볼 때 느끼는 무력감, 외소감, 위압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알면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독문학과 동기를 들은 거 많으니

“두 세 달에 한번씩 만나서 학창시절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다들 양념치지 않은 국물처럼 맑은 친구들이고 법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정도로 정치하



대학시절 카프카의 ‘城’ 연극공연 추억

“해외 나가면 윈드서핑, 자전거 즐겨 타”

고 깨끗합니다.”

— 내년이면 환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60대 이후 인생 계획을 들려주세요.

“마음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대 정도의 느낌입니다(웃음). 등산과 수영을 주로 하고 해외 나가면 윈드서핑과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60대 이후에는 지어나 보수에 구애받지 않고 고간의 경험을 국가와 사회에 돌려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여유 시간이 생기면 주로 무엇을 하시지요.

“실제로 시간 여유가 거의 없지만 혹시 시간이 나면 직업과 직접 연관 없는 역사나 철학 관련 서적을 읽으려고 합니다.”

— 가족 중에 동인이 계신가요?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딸이 사회학과 98학번이고, 며느리가 전기공학부 97학번입니다. 아이들이 이렇

을 밝히는 것을 꺼려서 밝힐 순 없지만 끝나는 지금 하버드에서 철학과 법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며느리는 MIT 석사 후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들은 미국 코넬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게임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 딸, 며느리... 핵심역량이 서울대 출신이군요. (웃음)

“딸이기가 자유롭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을 3년 반 만에 졸업했는데, 그동안 졸업 대학신문 기사를 했어요. 현재 매사추세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얻어요. 방학 때마다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가서 인권 단체의 변호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동창회에 평생회비를 납부하셨군요. 동창회비는 잘 보고 계시는지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서울대 동창회비는 다른 회보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방대해서 국가 사회에 갖는 책임감이 동창의 결속요구를 훨씬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성에 맞는 동창회보로 계속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 끝으로 모교와 외교관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는 한국사회의 중심이지만 그 무게와 위상이 갖는 양면성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역사에 있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많은 경우 문제 해결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교훈입니다. 또 대학생의 서가를 보고 그가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창생활 중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 습득을 통해 기반을 닦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외교관은 노력한 만큼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외교부 채용방식을 외무고시 외에도 다양하게 열어 놓을 생각입니다. 각 분야별로 인턴시원을 뽑아 그 중 능력 있는 젊은이를 채용하는 방식을 급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뜻있는 후배들이 많이 지원해서 국가 이익에 기여했으면 좋지요.”

■ 宋慶淳장관 약력

△88년 경남 진양 출생 △67년 경남 마산고졸 △75년 외무부 입부(제9회 외무고시) △89년 안보과장 △91년 북미과장 △92년 주싱가포르 참사관 △96년 북미국신외관 △97년 장관보좌관 △97년 대통령비서실 국제안보비서관·외교정보비서관 △99년 북미국장 △01년 주폴란드 대사 △03년 경기도 국제관계자문자 △04년 기획관리실장 △05년 차관보 △06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사진 = 본보 李五峰는설위원·정리 = 金南柱기자)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사옥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네 번에 걸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형 글판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월 21일 문화 정책비밀 건립 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한 교보생명보험 恒昌幸(의학72·78 대신문화재단 이사장 겸임)회장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을 찾았을 때는 안도현 시인의 '연한 한 장' 중 '살이 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가까이 연한 한 장 되는 것'이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다.

恒昌장은 "장학사업이란 참 좋은 일이지만 1년에 한두 번 기금만 전달하는 방법만으로는 궁극적인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며 "정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품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철저히 평가해 장학성을 선정한 후, 이들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육성하고 지원해 가는 방식의 사업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누군가에게 한번 타고 없어지는 '연한 한 장'이 되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다음 사람에게 '연한 두 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부임을 일깨워준 恒昌장의 남다른 철학 등을 들어봤다.

화제의 문인

교보생명보험 恒昌幸회장

<장학빌딩 건립기금 10억 출연>

— 어떤 재학생들에 장학금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시는지.

“현재 국내 장학사업 단체들이 주로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정하지만, 우리 사회는 많은 리더들을 필요로 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 잘 하는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을 잘 실천하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통해서 미래 한국사회를 걸머질 리더들을 육성하려면 수혜자 선정 시 학업성적 외에도, 시정감각이나, 열정, 의사전달 능력, 봉사정신, 협동정신 등의 품성들도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학업성적에만 구애 받지 말고 이러한 여러 가지 품격과 인성의 자질을 두루 갖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보시는군요.

“1993년 공익재단법인인 대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후로 돈을 의미 있게 쓸 때는 법을 배워 왔고, 2000년 교보생명보험의 경영을 맡게 되어서는 돈을 바르게 잘 버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호지부지 쓰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돈만 벌다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살아 있는 동안 이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기부할 때 수혜대상인 단체나 개인이 기금을 사회발전에 위해서 잘 활용할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돈을 잘 쓸 줄 아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 교보생명명은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데.

“원래 선전(大田 恒昌幸 회장)께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에게 아낌없이 투자”

국민교육 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보생명보험을 창립하신 이래, 50년 가까이 일관된 경영철학과 가치관으로 회사를 경영해 오셨고, 1991년부터 여러 공익재단법인들을 설립해 단체들과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사회공헌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교보대음이봉사단을 창단하셨는데.

“‘교보 나눔이’란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보사람들’이라는 뜻으로서, 2002년 12월 창립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지원, 해외 한국문화 연구지원, 국제 문화 교류, 대산 청소년 문화상, 전국 청소년 연극제,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등 다양한 공익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비빔서서 여가를 즐기거나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없으시겠습니까.

“마음이 어지럽거나 경영의 지혜가 필요할 때면 주관을 이용해 책 속에 몰두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잘 풀리지 않던 문제들의 해답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 무릎을 치며 제재를 부르기도 하죠. 또 제가 틈날 때마다 걷기운동을 하는 이유는 CEO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업조직의 부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CEO가 늘 정신이 맑고 건강해야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엔 풀치가 아플 때 성악을 듣는 게 기분전환에 특효약이더군요.”

— 송년 자선행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부르셨죠.

“기타는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클래식 기타를 조금 배우다가 외아들과 시할 전구들과 아바추어 그를 사운드를 결성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활동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년 전 사업들의 여과 자선행사에서 30년만에 기타치며 노래를 불렀고, 교보생명 보험관리자FP 대상 시상식에서는 공연왕 수상자와 함께 축하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주말에 잠을 내서 함께 연습을 많이 했습니.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또 해야겠죠. 때론 경영자도 사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죠. 하지

그렇다고 가르쳐 줄 스승도 없었고... 금융, 보험관련 경영서적을 자주 읽고, 여러 분야 경영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는 우선 어떤 사람들이 진짜 회사의 리더가 될 사람인가, 그리고 그 분들의 의욕을 드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터득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명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앞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기업조직의 성과관 관련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목표관리와 성과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을 스스로 물어보며, 독서를 통해 열심히 과고들을 고민한 끝에 조금씩 깨우치게 됐죠.”

— 자녀들과는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선전에서 퇴근하하면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항상 서운했죠. 비싼 일과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겠지... 그런데 어느날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되도록이면 두 아들과는 이런저런 얘기를 부자자간에 많이 나누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



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주 주고받는 편이지요.”

— 역할모델을 해준 분이 있다면.

“선전에서부터 상장에 맞게 남철함과 자애로움을 발휘하는 법을 배웠고, 삼성생명화화 許崇義(사장으로부터는 '고적만족 경영'을, 동원시스템즈 徐斗七부회장으로부터는 '변화 혁신 경영'을 깨달았습니다. 늘 그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 끝으로 후배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인생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군요. 사실 교육이란 좁게는 학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사람이 제 구실을 하면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도덕, 타인을 시련을 줄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어떤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부딪쳐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면 현명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운 후, 결국 더 큰 성공을 이뤄내셨어요. (表)

(시장은 본보 李五峰는설위원·교보생명)



“돈 바르게 벌고, 의미있게 쓰는 법 배워”

직원 위한 송년행사서 기타 실력 뽐내

참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회공익활동이라면, 보람이란 제도는 미래의 역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남의 역경을 돕는 사랑의 정신에 기반한 것이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공익활동이 비영리사업인데 비해 보험업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사원들에게는 이를 잘대 혼동하지 않기를 강조합니다. 영리사업인 보험사업을 공익사업처럼 경영하자는 회사가 금방 부실해서 우리 회사를 받고 기업인 보람에 사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 대신문화재단은 올해 15년째가 되죠.

“지난 92년 설립해 이듬해인 93년부터 국내 최대의 종합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을 매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문학인 창작지원, 한국문화와 외국문화 번역

단 요즘엔 목소리가 쉬어서 노래는 잘 못할 것 같아요(웃음).”

— 비빔신 외중에도 외부강연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까지 강의를 많이 하러 나갔는데 요즘에는 목이 안 좋아서 자제하는 편입니다.”

— 서울대 후배 재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던.

“만일 요청이 온다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내지요.”

— 외대 교수에서 CEO로 탈바꿈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일사 당시엔 선전에서 일케봉송인 회사를 맡아주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한 시정감이 있었기에 사실입니다. 그 당시 경영에 관한 제 경험과 능력은 많이 미흡했어.

공트 릴레이

용신이 생각나는 날

朴 順 女
(영애교육50등)
소설가



"사람을 찾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이후 무렵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6·25때의 일입니다. 서울 을지로 6가쯤으로 생각되는 어느 골목집에서 북한군에 쫓기는 우리 병사 한 사람을 이흥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어떤 아가씨가 살려 주셨습니디. 그 아가씨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때의 국군아저씨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그때의 그 아가씨를 찾습니다. 죽기 전에 한 마디,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을지로 6가... 아가씨... 북한군... 우리 병사-속삭일머니는 너무나 놀라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야근자 저전. 나를 찾고 있는 거야 난가. 텔레비전의 말이 내는 한 마디도 틀리지 않았다. 이흥도 나이도 모른대지만 저 것은 분명히 속삭일머니를 찾고 있다는 말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아...

텔레비전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를 찾는 프로가 있는데 요즘은 찾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를 찾곤 했다. 그러나 그런 프로에서 속삭일머니, 자기를 찾는 사람이 나오다니! 그런데 6월 28일, 국군 병사라는 두 마디만 들어도 속삭일머니는 그날의 그 일이 어제의 일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이흥도 나이도 모른대지만 이름은 현재의 속삭일머니에서 할머니를 빼고 그냥 속자였다 나이는 알 아님, 그때 속자가 을지로 집을 떠나지 않은 것은 약혼자인 용신이 때문이었다.

처절한 전쟁, 그 처절한 전쟁을 만난 사람들이 피해 보지만 속자는 부모가 있는 사람로 갈 수가 없었다. 용신이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군은 초장에 박살이 났고 용신이는 국군 소위였다. 속자가 믿었던 대로 용신이가 나타났다.



일러스테이션 吳漢亨 (서양화02인) 동문

27일, 6월의 늦은 해가 떨어지 무렵이었다. 용신이는 속자가 기다리는 집의 현관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군복은 흙탕물에서 막 나온 것처럼 시누웠고 그 시누운 군복 속에서 두 눈만이 이글거렸다. 잠을 자지 못해서 시달리게 튀어나온 그 두 눈은 보는 순간 속자는 모든 말을 잃었다. 용신이는 현관에 들어섰지만 일초도 지체하지 않고 들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만 기다려요. 일주일이면 다시 온다!"

용신이는 갔다. 그 말을 남기고, 敗走하는 국군, 빨방이 흩어져 한강 너머로, 한강 너머로, 파산빈과 국군이 엉켜서 뛰고 포소리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28일, 아군 속인가 적군 속인가. 밖을 내다본다는 것은 죽는 일만 같았다. 속자는 낡은 철제 침대에서 집안의 모든 이불을 덮어 싸워놓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총안이 날아오면 이불이 조금은 방패가 될까 싶어서. 표음, 따따따! 대포가 아닌 소총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얼마를 지냈을까. 현관 밖에서 갑자기 후다다, 하는 발소리가 났다. 현관 밖은

바로 자를자른한 집들이 모여 있는 골목길이었다. 발소리는 한 순간 찾아들었다는 듯이 탕탕탕탕, 판자들 두들기는 소리로 변했다. 그것은 속자에 부엌문을 두들기는 소리였다. 속자는 숨이 멎었다.

탕탕탕탕, 소리는 더 크게 그리고 다급했다. 누구지! 속자가 나서지 않으면 소리의 주인공이 박치고 들어오겠지. 그 다급한 소리로 미워 보아서, 속자는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와 부엌문을 가시 열었다.

군복의 사나이가 밟고 들어섰다. 총도 들었다. 속자는 하얗게 질리는데 어느 쪽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헛기다했기 때문이라. 이런 때에 국군보고 인민군 중무, 인민군보고 국군아저씨 했다가는 목숨이 두 개라도 모자랄 것이었다.

속자가 달짝달짝 입을 열었다.

"... 수, 수고하세요..."

어느 쪽에도 통하는 한 마디였다.

"사, 사복 좀 주세요!"

군인이 말했다. 그도 더듬거렸다.

국군이다! 아, 쫓기는 국군이다! 반가운데, 뒤쫓는 사람은? 속자는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서 벽장문을 열었다. 남자 옷이 없었다. 용신이가 오면 간혹 갈아입는 바지가 딱 하나. 러닝셔츠가 두어 개, 그리고 양말, 남자 것이라곤는 그것이 전부였

무신에 이마는 수건으로 가리고, 국군도 속자도 허둥거렸다.

"속자야 속자야."

옥희엄마가 다시 불렀다. 옥희엄마 손에 밀짚모자가 들려 있었다.

"이걸 꼭 눌러 쓰래라."

국군은 밀짚모자까지 쓰고 내키며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모양이었다. 그가 말했다.

"일주일이면 다시 옵니다. 꼭 옵니다."

27일에 용신이가 남기고 간 말,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다시 와서 찾아 뵙겠습니다."

그는 세 번쯤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나서 총총히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 군복이며 군화, 총이 널브러져 있었다.

벽장 속에도 총이 있는데, 실탄해 있는데 용신이가 두고 갔다가 다시 가져갔다가 하던 물건들이었다. 속자는 국군이 남기고 간 물건들도 그 벽장 속에도 올랐다. 어디 갈출 조가 없었다. 그것들이 이제 자기 목을 쏘게 될 것이다. 무가까.

아니니 다들까 세상이 바뀌고 나서 며칠이 안돼서 밖이 시끄러워졌다. 트럭이 마이를 달고, 군 경 그러니까 남한의 군인이나 경찰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두 팔팔 것도 없고 무기를 훔치고 있는 사람도 자신 신고하러. 아무 때까지 신고하면 배주지만 그때를 넘기면 엄청 처벌한다. 엄청 처벌 엄청 처벌, 마이크는 종일 엄청 처벌을 떠돌고 다녔다.

죽어갔다는 것인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집집을 뒤지고 다닐 것이다.

이런데도 옥희엄마가 싫어했다. 그 물건들을 속자에 공애로 묻으라는 것이었다.

"우리 민수 보래까 돌아서 오늘밤에 묻어라." 절대로 소리를 내선 안된다.

"뒷집이 빨강이다. 빨강이가 왔더라. 들키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옥희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날 밤 속자는 옥희엄마 민수하고 돌아서 밤 바깥을 갔다. 속자는 민수으로, 민수는 꼬챙이로. 누가 누구를 살렸다면 그것은 바로 옥희엄마가 한 일이었다.

일주일이면 돌아오겠다면 용신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청주방면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사람들이 서울을 다 떠났고 속자는 을지로 집에 남아서 용신이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서 속자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자식도 낳아서 시집·장가를 보냈다. 얼마 전에는 영감까지 떠나보냈다. 영감까지 떠나보낸 나이가 되었으니 이 기회에 옥희엄마를 찾아보고 싶어도 바벌써 세 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속자를 큰딸처럼 정말 큰딸처럼 챙겨왔던 옥희엄마, 국군아저씨가 만나야 할 사람은 그 옥희엄마인데...

"... 그래, 나도 생각이 나는 건데..." 속삭일머니가 중얼거린다. 용신이를 찾아볼 생각을 한 것이다.

그 옛날, 가슴이 무너지면 그 옛날 속자 할머니는 용신이에게 꼭 한번 다녀왔다. 동작중 국군보이 "이윤신 대위"라는 묘비 앞에서 속자는 울고 울고 또 울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오래 찾아보면 용신이가 너무나 늙었다고 할 게야..."

다시 중얼거리는 속삭일머니 얼굴에 희미한 비소가 번진다.

66

1950년 6월

일주일이면 돌아오겠다면

용신이는 영명

돌아오지 못했다.

청주방면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사람들이 서울을 다 비울 때도

속자는 을지로 집에 남아서

용신이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99

제61회 학위수여식

학사·석사·박사 총 5천3백99명 배출

李 총장 “대한민국 도약시키는 첨병되기를”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교 林光洙회장, 孫一振상임부회장, 尹勳煥·孔大植·禹仁性부회장, 許植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權壽赫·李賢宰·趙完生·鮮于仲祐·李基俊·鄭雲燦 전임 총장과 李長茂총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金完鎭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4백58명, 석·박사통합 95명, 석사 1천6백22명, 학사 3천2백24명 등 총 5천3백99명에 게 학위를 수여했다.

李長茂총장은 식사를 통해 “창조적 지성과 지성적 균형의 지혜를 갖추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지 수시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한단계 도약시킬 위대한 세대의 첨병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교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졸업생들에게 “知的正直을 지키러 가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며 나눈 문화정착에 앞장서달라”고 말한 뒤 “나보다 부족한 이웃, 나보다 덜 배운 이웃, 나보다 성취 못한 이웃에게 배울고 나누는 서울대인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 “모교는 거대한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제캠퍼스’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의 신설 등 새로운 도약을 구상하고 있으며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어 음대 朴賢宰(성악86-90) 교수가 축가를 선사했으며, 졸업생을 대표로 수학과 徐鎭濤동문이 인사말을 했다.

인문대학 언어학과 백은진 동문 등 16명이 각 단과대학 성적 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졸업생은 학사 28명, 석사 54명, 박사 20명 등 총 1백2명이었다.

한편 최고령 졸업생은 1971년 사회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지 36년만에 학사모를 쓴게 된 梁寅洙(57세)동문이다.

梁동문은 1970~1980년대 학생운동에 앞장서 세 번의 제재를 받았고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됐다.

梁동문은 “대학가서 공부는 안하고 맨날 시위만 한다면 애매했던 부모님의 영전에 졸업장을 바치고 싶어 늦게나마 복학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梁동문은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오사카 경제법과에 고려대 행정학과 등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백은진-김정현 ▲사회대 : 홍지연-김기원 ▲자연대 : 서의원-서인식 ▲간호대 : 황은성-김진대 ▲경영대 : 장성용-민효원 ▲공대 : 권기태-신용대 ▲농생명 : 김병서-박한미 ▲미대 : 장소연-이혜진 ▲법대 : 조수진-나원식 ▲사대 : 이병민-이수향 ▲생활대 : 박은은-박주영 ▲수의대 : 김병하-윤영민 ▲약대 : 김민희-최유진 ▲음대 : 김소연-이정현 ▲외대 : 김민지-안성훈 ▲치대 : 안효원-민승기

“동창회 입회 축하합니다”

200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6일 거행해 학사 3천2백24명, 석사 1천6백22명, 석·박사통합 95명, 박사 4백58명 등 모두 5천3백99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동창회 총 회원수는 31만8천3백61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었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단과대학(원)	졸업생	회원
인문대학	215	10,113
사회과학대학	307	13,146
자연과학대학	199	9,970
간호대학	64	3,278
경영대학	168	6,256
공과대학	843	40,009
농생명과학대학	266	19,843
문리과대학	-	9,731
미술대학	111	4,901
법과대학	191	15,507
사범대학	259	24,807
산과대학	-	6,723
생활과학대학	60	3,765
수의과대학	42	2,121
약학대학	82	5,964
음과대학	136	7,073
외과대학	173	10,855
치과대학	108	5,990
대학원	1,935	78,706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국제대학원	53	254
보건대학원	43	3,016
사범대학원	-	508
신무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62	4,157
환경대학원	82	2,258
소계	5,399	290,482
준회원	-	13,338
(특별과정)	507	14,541
총계	5,906	318,361

공과대학

‘튜터제’로 학부교육 강화

공과대학(학장 金鎭然)은 이번 학기부터 선배들이 신입생의 기초과목을 개인지도하는 ‘튜터

李長茂총장 졸업식사 (요지)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보낸 수학기間は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엔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준비를 할기에 만만치 않은 현실을 깨닫게도 충분치 않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을 떠나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꿈을 접을 때가 아니며, 오히려 지금이 정말로 더 새로운 꿈을 가질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식은 이제까지 여러분 자부심의 원천이지만, 이제는 창조적 지성과 지성적 균형의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 나가는 자는 끝날 뒤에 처진 사람들의 권경을 잇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와 우, 앞과 뒤, 위와 아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줄 아는 지성적 균형 감각도 필요합니다.

신경하는 지성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졸업생 여러분의 도전과 기여가 없이는 결코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정배를 위하여 과감히 도전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도전하기 바랍니다.

타인,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성향이 다른 이들과도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무대에서 낮은 문화와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는 문화적 포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지점은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자기혁신에서 나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노력과 성취는 앞으로 살아갈 동안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개방적 태도 즉, 열린 마음이었으면 여러분이 전개할 미래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어 실패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넓은 시야와 밝은 안목으로 멋진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권위와 양심이 위협받고 질타되고도 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급진민주의 물신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연, 지연 등을 따지는 편협한 본파주의, 개인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패배주의 등 갖가지 위협과 유혹이 도처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은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밝아온 졸업장은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로 바깥세상의 모든 위험과 유혹을 능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해서 졸업생 여러분들 한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 지성과 부절할 실천의지로 무장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도전 정신, 동료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지성적 동료애, 그리고 고민에 그치지 않고 실천할 줄 아는 지성으로, 여러분의 꿈과 구회 방향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세대를 새로이 결성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교문을 나서지만, 모교인 서울대학교는 졸업생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졸업생 여러분도 여러분을 키워준 서울대학교를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랍니다.

서울 영예로운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내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졸업생 여러분의 배가 한탄도, 동복을 넘어 5대양, 6대륙을 누비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가족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기뻐하는 위대한 세대에 대한 아름다운 꿈입니다.

(Tutor)제도를 도입해 학부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튜터제도’는 학부생 가운데 물리와 수학과목에서 A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해 원하는 신입생들에게 매주 두세 시간씩 과외를 해주는 방안이다.

튜터제도를 희망하는 신입생들은 매주 2~3시간씩 개인교습을 받게되며, 튜터로 선발된 학생들은 매달 20~30만원의 장학금과 튜터 봉사입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농생명 김수민 박사

SCI급 논문 15건 게재

농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박사과정 김수민(대학원 01-03) 동문(사진)이 지난해 SCI급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10편을 비롯해 총 1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국립대 임산과학부를 졸업한 김동문은 지난 2월 14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시간주립대 박사과정에서 새집중추진 저감 내장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먼저 저는 서울대 30만 동문을 대표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이들을 정성껏 길러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임과 또 성실하게 지도해 주신 총장님들께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은공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영예로운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이 자리에 오주신 모든 분들의 정성을 모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서울대인은 이른바 '知的正直(Intellectual Honest)'을 지켜나갑시다. 이것은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젊은이가 반드시 갖춰야 할 품성이며 경륜입니다.

절제된 감정, 정당한 논리나 다 지적정직의 소산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따르되 파행과 이완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완원된 독선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울대인의 함성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적 실천 덕목입니다.

둘째,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지난날 말 다보스의 세계 경제포럼 주제가 권력방정식의 이동(The Shifting Power Equation)이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동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열린 마음과 상상력으로 대처해 나가십시오.

셋째, 서울대인은 나눔의 문화 장에도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동창회가 발간하고 있는 장학발원금 건립기금의 모금에 있어서 우리 서울대인은 놀라운 수업을 보여줬습니다. 지상 19층, 지하 6층, 총 건평 6천5백평의 건립기금 3백여원을 1년만에 거의 다 모아냈습니다.

앞으로는 나보다 부족한 이웃, 나보다 덜 배운 이웃, 나보다 성취 못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돼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기오는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정국은 매우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대인은 뚜렷한 역사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의 물결에 자기 소신을 똑바로 대담해야 할 것입니다.

천애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총동창회의 신인 회원이 됩니다. 지금 서울대는 李長茂총장의 취임과 함께 '거리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제화패스'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의 신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도약을 구상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서울대를 현재 세계 63위에서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 성취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참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서울대 가족의 일원으로써 재학시절에 모교에 대해 못 다한 애정을 이제 동창회를 통해 마음껏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이가 삽니다!"

그리고 "조국의 운명은 우리 서울대인의 무한책임으로 지켜 나갑니다!"

다시 한번 후배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축사로 가겠습니다.

'맞춤형 장학복지제'로
장학생 비율 70% 늘려

모교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1학기부터 학부모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복지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여러 등급으로 차등화해 하위 그룹에 장학금과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모교는 등록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모든 학생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 2학기부터 시작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맞춤형 장학복지제도가 실시되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의 42.9%(2006년 기준)에서 70%로, 장학금 규모는 6백20억원에서 1천10억원으로 늘어났다. 李長茂학장재정장은 "자립지원 기

성회비 수입의 10%를 장학금 재원으로 쓴다면 예산 증가분을 충당할 수 있다"며 "4천명 수업을 목표로 신축을 추진 중인 기숙사가 완공되면 기숙사 수용률도 종전 15%에서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작정 기성회비 인상을 억제하고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성회비 수입을 늘려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캐디파워 朴鍾朱사장
기초전력연구에 20억 쾌척

지난 1월 18일 캐디파워 회장 朴鍾朱(사진)가 모교 재단법인 기초전력연구원(원장 鄭煥教)에 20억원 상당의 연구·교육센터용 건립부지를 기증했다.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전력IT 중앙교육센터'는 5백여 평 규모로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삼번천리에 위치하게 된다.

기초전력연구원측이 이번 기증받은 부지를 포함해 앞으로 4년간 2백10억원(정부 1백20억원)을 투자해 건립할 교육센터는 전력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한 연구·교육을 집중 양성하게 된다.

朴鍾朱장은 모교 최고경영자과정(AMP 55기), 국가정책과정(ACAD 62기)을 이수했으며 지난 2월 23일 최고산업전략과정(AIP 36기)을 수료했다.

공대 신입생 OT서
許鎭鎭회장 10억 출연

공과대학(학장 金鎭然)은 지난 2월 3일 교내 문화관 대강당에서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열었다.

수시·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한 이날 행사



는 신입생들에게 공학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자 기획됐다.

특별강연과 축하공연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공대동창회 許鎭鎭

(금속59-63회)장(사진)은 "Global Leader를 키워내야 일하고 자 장학금을 출연했다"고 말하고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또 축하공연에 초대된 가수 이문세 씨는 자신의 출연료를 기정해낸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용하라는 뜻을 밝혔다. 장학금은 두 명의 소년소녀 가장 신입생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연강재단 朴容畝이사장
모교 병원에 1억 쾌척

지난 2월 15일 두산그룹 산하의 연강재단 朴容畝이사장(사진)은 이 모교 병원에 연연구금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강재단은 지난해부터 연연구비를 지원했다. 2015년까지 매년 1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연구비는 암치료를 위한 신약개발과 임상 기초연구에 사용된다.

朴容畝이사장은 1968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해 의과대학



관장,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두산산업개발 공동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의대 鄭弘根교수
발전기금 1억 기부

지난 2월 28일 정년퇴임학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鄭弘根(화학62-66)교수(사진)가 지난해 9월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鄭弘根교수는 기부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지난 1월 31일 모교에서 감사의 뜻으로 부조제막식을 개최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졌다. 鄭교수가 출연한 발전기금은 의대 후학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鄭교수는 1978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미국 국립보건원(NIH) 박사후과정,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한국BKM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洪起倉교수 등 24명 정년퇴임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李長茂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4명의 교수 정년 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洪起倉(영문학)교수, 申孝松(독문학)교수, 吳金成(동양사학)교수, 鄭仁重(중국어사학)교수, 黃秀倉(정치학)교수, 金成基(수리과학)교수, 金秉泰(화학)교수, 文宇一(지구환경과학)

교수, 李麗玉(한화학)교수, 尹煥奎(재료공학)교수, 李正仁(지구환경시스템공학)교수, 金昌孝(원자력공학)교수, 宋相根(법학)교수, 金廣水(국민윤리교육)교수, 崔惠美(식품영양학)교수, 金壽中(수의학)교수, 金城柱(생약학)교수, 金基泰(의학)교수, 金宇基(의학)교수, 李正桓(의학)교수, 鄭弘根(의학)교수, 金光雄(행정학)교수, 盧化俊(행정학)교수, 高在丞(지리학)교수, (다음호에 프롤로그 게재)

환경대학원장
金基浩교수 임명

지난 2월 21일 환경대학원장에 조경학과 金基浩(건축학65-69)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신임 김원장은 모교에서 1971년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7년 미국 미네소타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미네아폴리스주 주택·재개발 공사 도시설계 책임연구관, 모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장, 환경



계획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신문 주간
張在盛교수 임명

지난 2월 1일 대학신문 주간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張在盛(불문75-82)교수(사진)가 임명



됐다. 張교수는 1982년 모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파리 제7대학을 나왔다. 그동안 모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장, 학생부학장, 한국불어불문학회 편집이사 등을 역임했다. (淑)

모교 병원 오케스트라 환자에 희망의 음악 선물

모교 병원 메디칼 빌딩모너 오케스트라(단장 張學)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연경캠퍼스 모교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제1회 희망의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환자들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진정한 인술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렸다.

이날 연주회에는 안과학교실 차紀好(의학81-87)·金城浚(의학89-93)교수를 비롯해 교수, 전임의, 전공의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메디칼 빌딩모너 오케스트라”



병원 로비에서 열린 음악회

는 의과대학 관현악단 동아리 출신 의사들이 주축으로 1990년에 창단됐다. 1990년대에 3차례 정기공연을 했지만 오랜기간 연주활동을 하지 못하다 이날 음악회를 기회로 재창단의 뜻을 모았다.

이들은 “진분 음악인이 아니라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줄 순 없지만, 의료 일선에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과 고통을 나누고자 잘 알기에 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픈 마음 하나로 연주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초교육원

高銀시인 초빙교수 임용

기초교육원은 지난 2월 21일 高銀시인을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高銀수는 오는 3월부터 1년간 을너비스의 강의를 담당하는 주재형 ‘관악도통강좌’에서 ‘우리의 안과 밖’이라는 교양과목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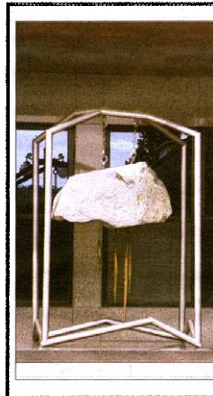
‘관악도통강좌’는 일반 교양과목 가운데 주제나 인물, 사건 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종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했다.

高銀수는 1958년 등단 후 시집과 소설, 평론집 등 1백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또한 자유실천문인협회 대표, 민족문화재기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 버클리대 초빙교수, 하버드대 연정연구소 특별연구교수를 지냈다.

모교 병원 강남센터

해의 의료관광객 유치

모교 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



센터(원장 吳熙熙)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과 공동으로 해외 한인 붐과 및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의료서비스 고객으로 유치한다.

지난 2월 14일 吳世勳(SGS 7기)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삼동 강남센터 대회의실에서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①

‘문화밖으로 98-3’

모교 연경캠퍼스 임상의학연구소 정문에 세워진 조형물 ‘문화밖으로 98-3’. 1998년 임상의학연구소 준공을 기념해 경시대 朴光—(조소82-89)교수가 제작, 기증했다. 돌과 금속의 혼합재료로 ‘문화밖으로’ 시리즈 중 하나이다.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테마의료관광사업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병원은 이를 계기로 감진상품을 시내관광과 묶은 패키지상품개발, 대중매체와 해의관광박람회 등을 통한 의료관광상품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淑)

재학생의 소리

<모교를 떠나면서>

“따뜻하고 분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金 잔 디
(간호02임)졸업생
총동창회장상 수상자

아느넷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분명히 대학 과정은 4년이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4년은 5년이 돼버렸다. 간호사로서의 생활이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대학 생활 하나하나 밟아오고 쌓아왔던 것들이 시행착오였던 나를 위한 건설적인 도전이든, 모두 다 나에게겐 큰 재산이 되어서 새롭게 다가온다.

솔직히 나는 학부시절,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훌륭한 학생은 절대 아니었다. 특히 초반 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듯, 어떻게 하면 조금 기술적으로(?) 시간을 더 벌 수 있는지를 탐구했고, 참 많이 놀았다. 중앙노래패 ‘메아리’를 3년간 하면서 좋은 친구와 선배배들은 물론이고, 음악적 동료와 훌륭한 비평가들을 많이 만났고, 축제기획을 하면서 내·외부적인 많은 활동을 해나갔다.

간호대학에 다닌다는 저리치심리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활동했었던 것 같다.

그 후 연경캠퍼스로 와서는, 실습을 거치며 단순히 간호기술적 측면을 넘어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겪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전공 외의 측면에서도 고민 끝에 내가 있는 공간을 주체적으로 바꿔나가고자 학생회장의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정말로 바쁘게 간호대학 학생회장과 실습을 같이 병행해 나갔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동아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간호대학에서 뜻이 맞는 학우들과 함께 봉사동아리, ‘다소니’를 만들었고, 참원멤버이자 첫 졸업생의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점점 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분명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사회에 첫 발을 담근다. 얼마 전 혼자 출적 갔던, 말레이시아의 어느 정글 속을 헤매면서 한 걸음을 뒀다. 힘들어도 현명하게 헤쳐나가기로.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서울대학교 졸업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서울대 가족

權舜赫 모교 명예교수

장남·사위·조카 등 14명 ... 3대가 의대 동문

“여유작작하면 모든 일이 잘되는 법이죠”

雨水가 지났지만 아직도 비림이 사늘한 아침, 경복궁 옆에 자리하고 있는 모교 權舜赫(의학41-47 前성균관대 이사장·모교 명예교수)전임 총장의 사무실을 찾았다.

“1남3녀 중 아들만 모교를 나왔는데 왜 우리가족을 인터뷰하냐 했지, 구경 때 모인 친척들을 다 따져보니 동문이 10명이 넘더군요. 기념이다 싶어 사진을 새로 찍었습시다. 빠진 사람도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교 동문이에요.”

지난 모임 때 새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며 權舜赫동문은 가족소개에 여념이 없었다. 權동문의 큰동생 權壽泓(기계공학51졸)은 인하대 명예교수)동문, 權동문의 장남 權東均(기계설계80-84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동문과 權東均동문의 아내 鄭銀珍(산업디자인86-90)동문, 작은동생 徐世鉉(회화46-50 화가)동문이 모교출신이다.

또 權동문의 맏사위 尹容範(의학66-72 모교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동문과 그의 아들 尹元在(의학95-99)동문, 둘째 사위 李命默(의학69-76)동문도 모교를 졸업했다.

權동문의 셋째 누나의 큰딸 崔圭順(가정교육61-65)동문과 權동문의 남편 鄭寅人(영문60-64 한양대 명예교수)동문을 비롯해 셋째 누나의 둘째 사위 故 安貴德(교육행정56-60 前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동문까지 모두 서울대 가족을 이루고 있다.

“여기 이 그림이 徐世鉉이가 八旬대 선물로 준겁니다. 추상화는 싫다고 얘기 했더니 나를 위해 따로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그림 멋있죠? 이제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밖에 걸린 그림 한 점을 가리키며 權동문은 작은동생인 徐동문 자랑을 했다. 徐世鉉동문은 모교 명예교수이며 현재 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徐동문의 장남 徐道漢(회화81-85)동문 역시 모



앞줄 좌로부터 徐世鉉·閔壽泓·權舜赫·崔圭順동문, 뒷줄 좌로부터 李命默·鄭寅人·尹容範·閔東均·尹元在 동문

교 출신으로서 조형·설치미술가로 각광받고 있다.

權舜赫동문의 장남 權允澤(의학78졸)동문이 사진 속에 없어 근황이 궁금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미국에 간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 일년에 두 세 번 들어오긴 하는데 이번엔 많이 바빠서 못 들어왔어. 아주 바쁜 사람이예요. 그래도 그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다.”

權允澤동문은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한인 교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남인 權允澤동문이 부친의 권유로 의대를 진학한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權舜赫동문은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고. 그래서 장남만 의대에 진학하고 세 딸은 각각 외국어와 음악 등 다른 전공을 택했다. 3녀인 權松澤동문은 모교 음대 석사과정에 입학했지만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고 현재 한양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내가 교수로 있을 때 容範이를 봤는데

키도 크고 훗칠한 게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위로 삼았지요. 둘째 사위인 命默이도 같이 나와 내 사위 해라 했어요.”

딸들이 의대에 진학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을까. 權동문은 두 사위 모두 의대 제자들을 접적어 두 딸과 짝지어줬다. 맏사위 尹容範동문은 현재 모교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尹동문의 장남인 尹元在(의학95-99)동문도 모교 병원 때

지던트를 지내고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대위로 군복무 중이다. 尹元在동문의 장인은 모교 의대 가정의학교실 許鳳烈(의학60-67)교수다.

둘째 사위 李命默동문은 모교 병원에서 내과 교수를 지냈으며 지금은 종북대 일산 불교종합병원의 의무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權동문은 자신은 사회활동 때문에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자녀들이 서로 友愛있게 잘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은 지금 병상에 있는 부인 鄭寅子 여사의 덕택이라고 한다.

해를 넘기며 다 함께 가족모임을 갖기는 힘들지만 주말이면 선릉동 같은 가벼운 외식을 즐긴다는 權동문은 “워킹맘이 건강하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실아산이여 대전, 해운대로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다 같이 얼굴보기가 힘들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權舜赫동문은 항상 자녀에게 평화스럽고 여유 있는 삶을 보내라고 한다.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權舜赫(의학41-47)동문 가족

장남

權允澤(의학78졸)

3녀

權松澤(대학원81입)

사위

尹容範(의학66-72)

李命默(의학69-76)

동생

閔壽泓(기계공학51졸)

徐世鉉(회화46-50)

조카딸

崔圭順(가정교육61-65)

조카사위

鄭寅人(영문60-64)

故 安貴德(교육행정56-60)

처조카

閔東均(기계설계80-84)

徐道漢(회화81-85)

처조카며느리

鄭銀珍(산업디자인86-90)

외손자

尹元在(의학95-99)

權동문은 그 마음을 담아 한 편의 책으로 내기도 했다.

지난해 출간된 ‘여유작작’은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된다는 權舜赫동문의 마음을 담은 에세이집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상에서 쉽게 가질 수 없는 마음이지만 權동문은 ‘여유작작하기’를 강조한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란 말이 있어요. ‘알지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공자말씀이지. 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아젠 내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해요. 즐기면서 말이죠.”

權동문은 ‘여유작작’에 이은 두 번째 ‘은교지신’(가제) 에세이집을 집필 중이다. 84세만 연세가 무색할 만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權동문의 비결은 아마도 ‘여유작작’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닐까. (淑)

동문기자 취재수첩

통계 속에 숨겨진 진실

“물 관리 종합대책 시행으로 한강 등 4대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대통령에게 수질 2천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역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수치로 1998년 1.5ppm에서 2004년 1.2ppm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에서는 고령지 배의 토양이 침식되고 오염물질이 난립하면서 한강에 오염물질이 갈수록 더 많이 흘러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라면 하천 오염은 갈수록 심해지는 게 당연한데도 물이 맑아지고 있다...! 알리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환경부가 그동안 발표한 수질 자료들을 한데 모아 대충 조사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부터 연도별로 수질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직접 계산하고 비교했다. 환경부가 늘 발표하는 BOD 수치 외에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나 질소·인, 식물영양분류의 성분을 나타내는 염류소자 지표까지 비교했다. 1년 단위로 비교할 경우 그해 2월 강수량·일조량 변화 때문에 정확한 추세를 보기 어려워 3년 단위의 평균치를 구해 비교했다.

그 결과 BOD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은 10여 년 전에 비해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COD는 93~95년 평균 2.3ppm에

서 98~2000년 3ppm으로, 2003~2005년에는 3.4ppm으로 높아졌다. 염류소자도 93~95년 평균 13.1mg에서 2003~2005년 19.2mg으로 높아졌다.

머뭇거리려 얻은 것이었지만 필자 자신도 설마 했던 결과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팔당호가 속으로 풀이가고 있다는 의미고, 환경부가 국민들을 속였던 셈이 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들고 담당 환경부를 찾았다. 부임한지 얼마 안된 환경부 국장도 처음엔 고개를 갇웃거렸다. 그래서 필자는 “1주일간의 시간을 좀 더내 충분히 검토한 뒤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

그 사이 자료를 구한 수질 전문가들도 “환경부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데 신경을 썼지만, 농경지나 도로 등에 흩어져 있다가 호수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이나 축산폐수 등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1주일 가량 지난 뒤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제시한 결과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들어왔다. 담당 국장은 “BOD 줄이기에만 치중해온 수질정화율 전반적으로 전향하고, 질소와 인 같은 부영양화 지표도 못나타냈었다”고 밝혔다.

이에 자신 있게 ‘BOD만 오히려 수질 개선은 늦었다’라는 제목으로 팔당호 수질이 악화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난해 4월



姜 讚 秀

(미생물82-87)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보도할 수 있었다. 팔당호 1급수를 지상과 지하로 여기고 있는 환경부로서는 꽤 이른 기사였음에 반명했지만, 아무런 반론이나 해명자료도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올 1월 초 또 다시 ‘팔당호 1급수’ 약속을 내놓았다.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인데 이번에는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환경부 담당 과장은 오히려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하고 되물었다.

사실 1991년 환경부(당시에는 환경청)는 팔당호 수질을 5년 내 1급수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고시까지 발표했으나, 1996년 BOD가 1.4ppm으로 나타났다.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1997년 환경부는 다시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환경부가 1990년대 초부터 4조원이 넘는 돈을 들고, 개발행위에 대한 온갖 규제를 다 동원하고서도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던 2015년에는 1급수를 달성한다는 것보다도 생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없이 지루한 작업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어느 보고서 한 귀퉁이에 적혀있는 다이옥신 농도 0.45ng(나노그램, 10억분의 1g)이란 수치를 단서로 해서 국내 환경업체 굴뚝에서 내뿜는 발암물질의 양이 서울 특등 소각장의 수천 배라는 것도 폭로할 수도 있었다. 또 측정지점별 오염도와 지역별 인구로부터 우리 국민의 85%가 유해오수질을 5년 내 1급수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고시까지 발표했으나, 1996년 BOD가 1.4ppm으로 나타났다. 약속을

동문기자 취재수첩

원칙을 지켜달라고...

‘진부한 주제, 파란만장 작업...!’,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병역 문제를 따져보자는 기사가 언론을 점령해 온 데 생각되었다. 언론에서 단골 메뉴로 다뤄졌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 면제도 끊을 거라는 여론은 이미 삼십여년 전부터 꽤 아닌가...! 일단 손을 대면 ‘탐사보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과물을 내야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어쨌든 취재진 3명이 구성됐고, 대상과 방향이 정해졌다. 대상은 고위 공직자와 재벌가, 언론사주들로 압축했다. 방향은 두 축이었다. ‘유전(유권) 면제, 무전(무권) 현역’이라는 사회적 불만이 사실인지를 통계로 확인해내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병역 비리 의혹을 추적해 이슈화하는 것이었다.

취재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관과 연속이었다. 1년반을 달리는 미션이 되려라는 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법적 공개 대상이었지만, 재벌가와 언론사주들은 의혹 추적이 고사하고 병역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재벌가는 7대 재벌로, 언론사는 소유주가 있는 5개사로 압축하고 중앙일보 편집으로 가계도를 그려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개개인의 병역 사항을 파악하는 취재 자체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험악기였다. 다각적인 시도를 해봤지만, 2백개가 넘는 반문을 매우기

는 쉽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제 지리란 맵 붙었다. 한 때 취재진이 해체되기도 했다.

필자들과가 찾아갔다. 지난 97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로 눈을 돌렸다. 2001년까지 4년이 걸린, 증권거래 회계라고 합당한 수사는 요란했지만, ‘합당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는 뜻이기도 부성했다. 당시 수사에 관련한 검찰과 군 검찰 관계자들을 접촉해 나가면서 취재에 ‘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방대한 수사기록을 입수했고, 의혹이 있는 ‘유명인사 명단’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의혹이 있어도 공식 시도가 지나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언론의 취재에는 공식시도가 없는 게 다형이었다.

당시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반란을 매우고, 육식(?)을 가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의혹이 있는 인사들의 병적기록도 사본을 입수하면서 취재는 한 단계 더 진전됐다. 10~30년이 된 병적기록표를 들고 그 당시의 군의관들을 찾아 기억을 더듬게 했고, 재벌가와 언론사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인터뷰를 거절하는 재벌 총수의 집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는 등 현장 취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자신은 취재의 끝부분은 지난해 11월 말 ‘파워레프트’ 그들의 병역을 말하달라는 60만짜리 규원레터로 시청자들에게 선보



林 莊 原

(경제87-94)

KBS 탐사보도팀 기자

주말 '9시뉴스' 앵커

였다. 취재한 내용을 버리고 또 버려가면서 1백% 정제된 사실(fact)만으로 탐판하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7대 재벌가의 병역 문제들이 33%에 이른다는 통계는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분노의 댓글로 이어졌고, 언론 사주 일가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은 불만 내민 국민과 인본을 외치는 보수언론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의 기술적 어려움 못지 않게 취재자를 괴롭힌 건 ‘음모론’이었다. 취재가 마비되자 차탈하면서 KBS가 대선을 앞두고 특

정 정당과 보수언론에 타격을 주기 위해 병역 문제를 다룰 거라는 선전이 증권가의 정보에 나돌았다. 아이들은 가슴이였지만, 취재진에게는 이를 불식시키는 작업 또한 심각한 고관기였다. 다른 정당 인사들의 병역 비리를 찾기 위해 더 뛰어야 했고, 오남입이 있는 사주 일가를 다뤄주려 한 재벌과 언론 쪽도 그 기준을 어기면서 KBS 사장의 병역 면제권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벌가와 언론사들의 음모와 합박은 방송이 나가기 직전까지 범점을 살치게 했다. 유명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반론에도 청구나 명예훼손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 해당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자성이 컸지만, 당시자들의 침묵과 의혹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위안을 삼았다.

기자 사회에서 최고와 영예인 한국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그동안의 고생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시상식장에서 뇌리에 떠오른 건 취재진이 고심 끝에 작성한 마지막 문구였다. ‘합당한 사람들에 양정사달라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할 뿐이다.’ ‘오늘’ 다른 사람들 재단하는 데 쓴 이 문구가 훗날 재단하는 데 쓰여진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 날을 두려워하는 자 서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동 정

수 상

▲李御寧(국문52-56 前문화부 장관·중앙일보 상임 고문)=지난 3월 1일 서울 홀리데이인서울에서 3·1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7회 3·1문화상 예술상 수상.

▲李仁浩(사학55일) 모교 서양사학과 명예교수·명지대 석좌교수=지난 2월 9일 미국 웨슬러대 '지광스런 동문상' 수상.

▲李榮一(공업교육66-70 피라다이스호텔 부산 사장)=지난 2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호텔리조트 카지노 산학협회로부터 경영대상 수상.

▲黃炳國(농생물66-70 고려대 교수)=지난 3월 1일 서울 홀리데이인서울에서 3·1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7회 3·1문화상 학술상(자연과학부문) 수상.

▲安圭洪(토목공학72-7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3월 1일 서울 홀리데이인서울에서 3·1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7회 3·1문화상 기술상 수상.

▲林亨圭(전자공학72-76 삼성종합기술원장)=지난 2월 2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평산위원회가 수여하는 2007년도 기술경영인상(최고기술책임자부문) 수상.

▲劉庭鉉(기계공학74-78 우진 대표)=지난 2월 2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평산위원회가 수여하는 2007년도 기술경영인상(중소기업 최고경영자부문) 수상.

▲金敏基(화학78을 극단 화전 대표)=오는 3월 22일 독일 바이마르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수여하는 2007년 괴테메달 수상.

▲金載亨(사법학83-87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1월 31일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제11회 법학논문상 수상.

▲韓基勲(의학85-89 울산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교수)=지난 3월 7일 한국화이자제약과 대한의학회가 공동 수여하는 제5회 화이자 의학연구상(기초의학연구부문) 수상.

▲金容達(행정66-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난 2월 22일 불림포럼 펜기술대학이 선정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적자원개발분야 우수지도자상 수상.

▲任才準(의학90-94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3월 7일 한국화이자제약과 대한의학회가 공동 수여하는 제5회 화이자 의학

연구상(임상의학연구부문) 수상.
▲李承漢(SGS 1171 삼성테크놀로지 사장)=지난 2월 13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제5회 서울정책인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인 사

▲閔丙岐(사회교육52-56 한국광고주협회장·본회 부회장)=지난 2월 13일 한국광고주협회 제7대 회장에 재임명. 또 28일 신문발행부수 조사기구인 한국ABC협회 회장에 선임.

▲李賢九(화학공학58-62 모교 화학공학공과대학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임기 3년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에 취임.

▲朴庚緒(사회58-62 前대한민국 인권대사·모교 사회학과 교수)=최근 이화여대 이화예술원 석좌교수에 선임.

▲崔熙善(교육행정61-65 前교육인적자원부 차관·경인고대 교수)=지난 2월 22일 중부대 제5대 총장에 선임.

▲金龍一(토목공학63-68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지난 2월 15일 한국하천협회 제2대 회장에 선임.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2월 10일 임기 4년의 제7대 수원예총 회장에 재선출.

▲李鏡江(사대원68을 前상남지청장·변호사)=지난 2월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제44대 회장에 당선.

▲金仲秀(경제66-73 前한국조세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장)=지난 2월 14일 한림대 제6대 총장에 취임.

▲李熙龍(전자공학67-71 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2월 20일 임기 2년의 산학협동재단 제10대 이사장에 선임.

▲任恩準(의교67-71 주재나그대사)=지난 2월 26일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제8대 이사장에 임명.

▲崔鉉敏(사회교육67-74 강원대 총장)=지난 12월 8일 목포대에서 열린 전국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임기 1년의 회장에 선출.

▲金元培(응용물리68-72 前노동부 기획관리실장·노사정위원회의 상임위원)=지난 2월 9일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에 선임.
▲邊龍植(정치68-75 조선일보 편집인)=지난 1월 3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16대 회장에 선출.

▲盧幸圭(의학68-74 모교 신경과학교실 교수)=최근 2010년 세계뇌졸중학회(WSC) 대회장직위원장 겸 회장에 추대.

▲成榮承(행정원71을 前국회방송교류재단 이사장·블로그방송 사장)=지난 2월 15일 임기 4년의 금강대학교 제3대 총장에 취임.

▲沈名弼(토목공학69-73 인하대 교수)=최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수자원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에 선출.

▲金仁圭(정치69-73 前KBS 이사·본보 논설위원)=오는 3월부터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로서 정치문화론과 언론

보론 강의.
▲朴基德(정치70-74 前세종연구소 정책연구실장·부소장)=지난 2월 2일 세종연구소 소장에 취임.

▲尹永寬(외교71-75 前외교통상부 장관·모교 외교학과 교수)=지난 2월 12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초대 원장에 선출.

▲裴基同(고교인류71-75 한양대 박물관장)=지난 2월 6일 5박여

개 국내 박물관·미술관을 이끌 제5대 한국박물관협회장에 취임.

▲**崔善熙**(외교71-75 대한법조 회 장)=지난 2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에

에 선출.

▲**吳永熙**(화학공학72-80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지난 2월 8일 산업자원부 제1차관에 임명.

▲**金武煥**(신대원72-75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지난 2월 1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총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연임.

▲**金錫東**(경영73-78 전행정경제부 차관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지난 2월 8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임명.

▲**盧圭善**(삼리73-77 리서치앤리서치 대표)=최근 일기 2년의 한미캐피탈먼트 조사팀의 제8대 회장에 선임.

▲**朴堧堧**(해안74-78 증권관리 교수)=최근 개최된 한국계량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2007년 회장에

선임.

▲**李承勳**(인투74-78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지난 2월 12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임명.

▲**李載勳**(경계74-78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지난 2월 8일 산업자원부 제2차관에 임명.

▲**裴英蕙**(기계설계75-79 다토크인사)=지난 2월 1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羅道成**(영어교육75-79 중소기업 연합 중소기업 정책본부장)=지난 2월 21일 중소기업연합 차장에 임명.

▲**白鍾賢**(사회교육77-81 대전대 교수)=최근 사단법인 한국인사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2007년 회장에 선임.

▲**趙泰玄**(대학원79-83 중소기업청 동인전소상공인지원센터장)=지난 2월 22일 중소기업청 부평소상공인지원센터장에 임명. 또 서울시교육청 교과과정 심의위원에 위촉.

▲**김완희**(AIP 34기·GLP 13기 트리고상사 대표)=지난 2월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수입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에 선출.

▲**鄭東華**(국어교육53-57 의식개혁위원회 상임대표)=지난 2월 22일 서울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동북아 경제와 한국의 전망'을 주제로 포럼 개최.

▲**南時旭**(정치54-58 광화문 문화포럼 회장)=지난 2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화미래포럼' 토론회(상학 63-67) 상임대표를 초청, '문화계의 전환할 실상'을 주제로 아침공론 개최.

▲**李澤徽**(정치57-61 국학원 원장)=지난 2월 13일 서울 안국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김병기 전문위원을 초청, '왜 고조선인가'를 주제로 국민강좌 개최.

▲**趙在璽**(조소60-64 서울조각회 회원)=지난 2월 1~15일 서울 중림동 가톨릭회관에서 '선·면·철을 찾아'라는 주제로 두

번제 개인전 개최.

▲**金元雄**(정치62-74 국회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지난 1월 21일 서울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를 방문, 동문들과 정치현안에 대해 논의.

▲**李長熙**(대외원75종 한국외대 교수·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지난 2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한

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 개최.

▲**金永明**(외교73-77 한림대 교수·한글문화연대 대표)=지난 2월 22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2007 한글문화연대 정기총회 개최.

▲**李珪柱**(회화76-80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지난 2월 20~28일 서울 서초동 갤러리에서 '共鳴의 빛'을 주제로 개인전 개최.

▲**徐惠英**(기악76-80 성결대 교

수)=오는 3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1바울에서 피아니스트 김용희씨와 함께 피아노 듀오연주회 개최.

▲**尹智垣**(기악86-90 충남교향악단 수석단원·오보이스트)=지난 3월 4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시아티움에서 오보에 독주회를

열어 첼리스트 **鄭載潤**(기악85-89)·바이올리니스트 정남일(기악86-90)·비올리스트 김재현(기악94-99)등과 협연.

▲**鄭八道**(AIP 1기 코리아엔드라페리 회장·문화재단 이사장)=지난 1~2월 한국경제신문 '환경제'에 종주자, 자원봉사 등 현

업에서 쌓은 경험담을 소개.

▲**朴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지난 2월 21일 서울 반포동 팔레트홀에서 '17대 대통령 선거와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조선세미나

개최.

'동정'님은 동문 여러분의 공진입니다. 많은 재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정번호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1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 화 : 02)886-2219 • 팩 스 : 02)886-2218

신 간

공직윤리-十地講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 李斗護 지음



보건사회부 차관, 한림대 교수 등을 역임한 著者李斗護(정치58-64 촉법반야기금 대표) 동문의 공직자 윤리에 대해 이야기, 정면 강직하고 소신있는 공무원으로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다진 李斗護님이 틈틈이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한 바를 적어두었던 공직 비평록 '인생잡기'를 정리했다.

이 책은 혼탁한 세상에 국민의 모범이 되어 할 공직자를 위한 10대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명심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품가'의 요체를 이야기한다. (도서출판 하늘재刊·값12,000원)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북한의 선군정치론
- 徐玉植 지음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徐玉植(중앙사69-73 경계대 정치전문대학원 연구교수·본보 논설위원) 동문이 김정일 시기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정착한 북한의 先軍政治를 대남전략 차원에서 해부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핵무기를 앞세운 선군정치가 대남전략에서 민족공포를 주창하며 적화통일을 위한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청사진인 김정일을 '통일대통령'

으로 추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라刊·값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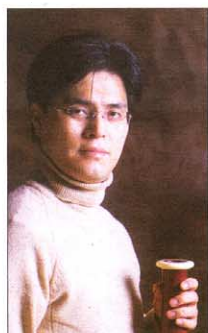
'월빙 라이선스'를 위한
노인 영양과 복지
- 朴明潤·李建順 지음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인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삼육대 겸임교수) 동문이 한국농업대학 李建順교수와 함께 고려대학교 건강관리학과를 졸업했다. 노년기 건강·영양·복지 문제 등 형북한 노후 살계를 위한 정보를 요약해 놓았다.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교재로 활용되고, 또한 60대 이상 노년층과 형북한 노후를 준비하는 40~50대 중년층에게 유익한 최신 정보를 수록했다. (광림刊·값12,000원)

공 연

林聖勳 비순 독주회
- 3월 17일 예술의 전당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수니스트 林聖勳(기악85-89) 동문(사진)이 독주회를 갖는다.

3월 17일 예술의 전당 리시아티움홀에서 프랑스 작곡자들의 작품을 선곡해 연주한다. <공연 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鄭玲安 첼로 독주회
- 3월 25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鄭玲安(기악92-96 평택대 대우 전임강사)동문이 3월 25일 예술의 전당 리시아티움홀에서 독주회를 열어 바흐, 슈만, 브람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 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바리톤 全奉奎 독창회
- 3월 27일 세종문화회관

경원대 성악과 全奉奎(성악64-68)교수가 3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제1바울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로 독창회를 개최한다. 송중문은 뉴욕 댈러스센터, 카네기홀, 쉐넬센터, 레만센터 등 유명한 연주회에서 오케스트라, 합창 지휘자로 활약한 바 있다. <공연 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동문기고

冠岳山은 과거금제 많은 '벼슬산'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을 보고 한 詩人이 이렇게 노래했다. 서울대학교는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그 전의 聯立大學의 性格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대학교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1964년 단과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서울대학교는 단과대학별로 다른 버지를 달고 다닌 학생이 있을 만큼, 뿌리가 다른 단과대학이 모인 연합대학교라는 의식이 많았다.

특히 문리대는 청색비딩에 흰 글씨로 '文理'라고 쓴 네모난 버지를 달고 다닌 산배가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관악캠퍼스를 대니 않은 세대는 선배를 얘기할 때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단과대학이 다르면 원지 선배라고 하기에는 서먹서먹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비단 필지만의 국한된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족은 한 지붕 밑에서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으며 두고, 다 두고 할 때 정이 돈독해 지고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커지는 것과 같이, 관악캠퍼스 전체를 자기 영역으로 해서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학우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때로는 갈등을 하고 또 이해하면서 자란 관악세대는 '동승동세대'를 비롯한 종합화 이전의 세대와는 확실히 다르게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문화를 창조해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관악캠퍼스에 입학할 세대가 벌써 50살을 넘어 동창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니 앞으로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관악캠퍼스가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관악구는 당연히 관악산에서 유래했으나 '冠岳'이라는 이름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의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울 확장함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동면 사흘리·독산리·가리봉리·신림리·봉천리를 영등포구에 편입하고, 이 新編입지역의 행정처리를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그 명칭을 '관악출장소'로 명명하면서부터이다. 또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의 법정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73년 3월 12일자에 지금의 관악구를 비롯,



李宇鎔

(정지64-68)

한국평민학회 이사

서울시 지명사전 집필

동작구와 서초구 지역 일부를 영등포구에서 분리해 별도의 구를 신설할 때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명명하면서부터이다.

위와 같이 관악구의 명칭은 당연히 '경기 금강'이라는 관악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경기 五岳(개성의 송악, 가평의 화악, 적성의 감악, 포천의 운악) 중 하나인 관악산은 예로부터 火山으로 불려 태조 이상제가 한양에 도읍을 정해 경복궁을 세울 때 불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경복궁 앞뜰에 해태를 세우기도 하고 또 관악산 정맥에 불뿔이 뿜었다고 하며, 또한 도성의 남대문 앞에 불이 남어오기 어렵게 南無라는 뜻을 뒀고 성문의 관역인 南無門을 새로 써서 경복궁을 마주보는 관악산의 火氣를 눌렀다고 전해진다.

冠岳山은 글자 그대로 예로부터 '벼슬산'이라고도 했는데, 관악산에 들어가 시험공부를 한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후기에 不定期試인 중광시, 별시, 알성시를 준비하기 위해 영남, 호남, 충청도 등 산남의 선비들도 과천 현 내에 거거하며 공부를 하며 대비했고, 그 후 서울대학교가 이곳에 자리 잡음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됐다. 신림동 일대 곳곳에는 고시원이 산재해 있어서 벼슬산이라고 했던 것이 단순한 전설만은 아닌 듯하다.

1968년부터 서울대학교 종합화를 위한 계획으로 새로운 학교부지로 시흥군 안양읍, 농대의 수원 일대, 태릉일대 국유지 45

변경됨)과 의성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수백년을 살아온 자하동(서울대학교 정문 동쪽 운동장 부근)이라는 마을을 합쳐 서울대학교 이전에 따른 기공식을 거행했다.

1973년 서울대 건립공사 진척과 함께 원주민들은 신림10동 신우초등학교 부근인 신림동 산72-1번지에 조성한 약 9천여 평의 '서울대학교 부지 철거민 단지'로 이주했다.

자하(紫霞)라는 이름은 조선조 정조·순조·헌종 3대에 걸쳐 詩·書·畫가 뛰어나 이른바 紫霞三絶로 이름 높은 신위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으로 그의 안호에서 유래했다. 이곳은 안개가 끼는 때가 많아 자하라는 이름 뜻지 않게 안개와 구름에 둘러싸여 풍치가 절경을 이룬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서쪽 관악산 계곡을 끼고 흘러내리는 도립천 원류 일대를 紫霞閣川·紫霞詩壇이라고 불러 사인 목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이곳은 일제시대에 시가드라는 일본인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내려가는 넓적한 평탄지에 계곡수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일본군의 여름 휴양지로 활용했다. '시가도 풀장'은 해방이후 관리 소홀로 일부 붕괴된 것을 안양 원유지나 풀장으로 옮겼으며, 1968년 지금의 제일광장 옆에 신림 풀장을 운영했지만 서울대학교 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후문 근처에 낙성대·落星洞이 있는데 고려시대 명장 姜邯鄲장군의 탄생지에서 유래한다. 장군이 출생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해 그 생가 터를 낙성대·낙성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 자리에는 몇몇 사람들이 '낙성대'라고 새긴 기념비와 사리탑모양의 3층 석탑을 세웠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에 의해 탑과 주변의 인적이 훼손됐다가 1964년에서야 보수됐다.

이와 같이 낙성대 터에 3층 석탑을 세워 탑골·탑동·탑동골이라 불리웠고 또 장군의 初名이 慶이기에 은천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姜邯鄲장군이 태어난 곳을 기념하기 위해 성역화한 공원은 판생지에서 3백m 떨어진 지다. 은천이라는 이름은 관악구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1958년 4월1일) 은천초등학교 이름으로 남아 있다.

“
신림동 일대 곳곳에는
고시원이 산재해 있어서
벼슬산이라고 했던 것이
단순한 전설만은
아닌 듯하다
”

만8천평과 공대 20만6천평을 검토했으나 자연지형이 협소하거나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1970년 2월 朴正熙대통령이 관악산 관악컨트리클럽 일대를 종합캠퍼스 부지로 확정했다. 이 때에 데모를 할 수 없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으로 캠퍼스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그 때가 아니었다면 1백만명이 넘는 새로운 학교부지를 서울 시내에서 얻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당시 어려운 재정에도 학교를 옮겨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운 해안과 결단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1971년 4월 2일 관악컨트리클럽 부지 1백7만평(1963년 개장한 冠岳컨트리클럽을 화성군 동탄면으로 옮겨서 冠岳컨트리클럽으로 했다가 지금은 리베라컨트리클럽으로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박영필(토목공학56-60)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수(치의학56-60)

△정계영(상학61-65)

△정광도(AIP 1기)

△홍성대(수학57-63)

◆3억원

△이길여(의학51-57)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김정철(건축52-56)

·김정식(건축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최한명화(가정교육60출)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일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안성철(행정58-63)

△故오용원(삼육공학7-71)

△오용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준범(삼육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중환(의학68-76)

△전동승(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중식(화학공학72-76)

△조병우(삼육공학50-64)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훈(기계공학54-58)

△최희환(삼육공학58-64)

△홍상수(원예학83-87)

△SNUA웨딩플래닝센터

◆6천만원

△엄병웅(외교학60-64)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안 훈(의학학53-57)

△유중해(법학50-54)

△이승준(삼육공학56-60)

·이정현(자원공학67출)

△이은주(의학83-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재원(상학55-59)

△이종현(전문기상학69출)

△이종현(경제학59-65)

△정재봉(사회사업60-64)

△자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라운드학회

△일신회 :

김진의(출산학59-65)

△한우리SJM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출)

△박동원(영어교육60-64)

△심형용(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훈(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출)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8)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정약66-70)

△김제백(의학52-56)

△윤세국(경제학45-51)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1천1백만원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옥(약학55-59)

◆1천만원

△김윤중(약학64-71)

△김윤택(경대원68-70)

△김일설(경영학64-68)

△변상현(의학51-57)

△장백진(토목공학52-56)

△송명호(자원공학59-65)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이태택(화학공학57-63)

△양해덕(전기공학57-61)

△오용섭(임학60-66)

△윤영석(경제학58-63)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재후(법학58-62)

△이건구(임학60-64)

△이건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형하(법학74-78)

△장재관(농공학70-76)

△장자준(의학70-77)

△조종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하영기(정치학44-48)

△함정호(행정학53-57)

△하성길(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전북지부동창회
 (이상 2005년 10월 1일
 ~2007년 2월 23일 출연해
 주신 분)

◆8천달러

△이내원(화학교육58-62)

◆1백50만원

△윤익석(출산49-53)

◆1백만원

△이경렬(응용미술69-73)

△전종강(전문기상64-68)

△최한순(조선공학65-70)

◆80만원

△이범구(물리학69-73)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50만원

△윤석용(채광학50-54)

◆30만원

△이남우(국제경제82-86)
 ◆20만원
 △김정경(역사교육61-65)
 △조두현(법학49-58)

◆15만원

△송창현(사법학88-93)

△이승운(경영학93-97)

△최문형(물리교육68-72)

◆12만원

△한홍진(대학원92-94)

◆10만원

△김찬우(수리과학01-06)

△박운수(정치학47-51)

△송몽재(영어교육67-71)

△안종윤(법학51-55)

△이병현(임학55-59)

△이영태(행대원72-74)

△이익진(SGS 2기)

△황두돈(농공학61-66)

(이상 2007년 1월 23일

~2007년 2월 23일 출연해

주신 분)

평생회비 : 2007년 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7. 1. 24.~1. 25.)·일반(07. 1. 23.)
원내 수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辛夷烈GLP동참회장= 20만원

(이사)	△강력속 GLP8
△강경주 사대71	△강태욱 사대70
△강승훈 의대70	△강희상 사대70
△고현석 법대70	△권오근 상대70
△곽진희 법대70	△권태현 상대70
△김 계 HUM5	△김남현 상대70
△김기현 의대70	△김예경 의대70
△김재욱 의대70	△김영환 문대70
△김기영 SCS1	△남민원 상대70
△문광순 공대70	△박송지 사대70
△박진규 문대70	△박찬준 의대70
△손성재 99학71	△신우재 공대70
△송현석 의대70	△신 훈 사대70
△양영수 상대70	△안상우 AMP70
△인재동 상대70	△연기호 의대70
△윤준수 공대71	△이계식 상대70
△이필립 법대70	△이병삼 문대70
△이영희 의대70	△이승기 상대70
△이영희 공대70	△이정부 99학71
△이정현 문대70	△이창기 의대70
△정준호 GLP9	△전주수 의대70
△정준호 공대70	△정종운 의대70
△정재홍 공대70	△조내규 의대70
△조준근 의대70	△조건희 인문70
△최희준 법대70	△최창무 상대70
△최승주 AMP70	△한형석 법대70
△홍석조 법대70	△홍성우 법대70
△홍희선 AMP70	

▲발판	▲김응선 지대
▲김경성 농계	▲김중희 공계
▲김경호 사계	▲고세범 공계
▲김교목 자연	▲고영인 공계
▲박광규 사계	▲구관서 사계
▲구분부 농계	▲홍희희 의대
▲권관희 의대	▲권영식 공계
▲권관현 법대	▲권지용 법대
▲권영희 AIC1	▲권혁수 AIC2
▲김현규 자연	▲김기 두 의대
▲김 훈 사계	▲김광호 공계
▲김달식 법대	▲김동철 법대
▲김근비 법대	▲김민진 공계
▲김복희 의대	▲김병국 자연
▲김삼갑 공계	▲김수호 농대
▲김성준 공계	▲김우진 공계
▲김연숙 법대	▲김영광 AMF
▲김옥숙 생활	▲김인상 공계
▲김재민 공계	▲김재경 HPM
▲김진숙 미대	▲김주진 법대
▲김진필 상계	▲김진범 공계
▲김조호 의대	▲김홍중 AMF
▲김자희 의대	▲노영환 공계
▲노유신 자연	▲노재관 법대
▲루영진 법대	▲문경란 사계

△문규상 박재	△문석식 사
△문준호 AICD	△민병문 논
△박기영 AIPD	△민병관 사
△박상근 공대	△박세준 공대
△박규구 상대	△박성일 문
△박기영 사대	△박정진 기
△박찬성 사화	△박현아 음대
△배재보 CLP4	△배성진 법대
△백낙우 음대	△변종서 문리
△서지현 논대	△서용석 사대
△서현태 법대	△서철호 의대
△서정현 공대	△손호정 상대
△송승호 상대	△신동인 공대
△신윤미 문리	△신재중 공대
△심삼수 미대	△심형운 공대
△이성호 법대	△이희경 사대
△양동규 치대	△양태경 사대
△염준성 문리	△원규진 상대
△오재석 사대	△원훈의 사대
△유경열 공대	△유덕상 문리
△유인성 인문	△유준환 공대
△유진지 사화	△유영길 공대
△윤재강 공대	△윤정혜 사대
△윤종우 공대	△윤현천 음대
△이근주 공대	△이기열 AMPD
△이호성 상대	△이두호 공대
△이인환 공대	△이민자 AICD
△이병권 약대	△이병환 문리
△이성진 법대	△이상복 문리
△이세진 공대	△이수신 미대
△이아름 공대	△이승현 음대
△이아성 경영	△이영삼 공대
△이영주 사대	△이옥희 생활
△이영우 문리	△이원규 사대
△이은진 AMPD	△이재갑 상대

△이준재 부대	△이진호 상대
△이승진 AIP	△이태영 상대
△이필수 수익	△이형근 HPM
△이영은 사대	△이홍민 권대
△장근호 외대	△장봉린 외대
△장승규 상대	△장승찬 경원
△장승진 상대	△장원석 상대
△장지영 치대	△장영훈 법대
△전진기 음대	△전형재 경원
△전호석 공대	△정영민 GI.P
△정기성 사대	△정복수 상대
△정수훈 사대	△정우식 공대
△정현진 사대	△정종국 수대
△정영태 수익	△조규철 상대
△조기봉 공대	△조석기 상대
△조현철 공대	△조태관 사대
△주현동 사대	△최승진 사대
△최광선 상대	△최여민 미대
△최기현 공대	△최정민 AIP
△최준기 공대	△최진민 상대
△최진수 법대	△최이영 AIP
△하영달 AIP	△하진수 공대
△한봉조 법대	△한상진 공대
△한성진 AIP	△한정호 외대

△한태열 문리58 △허정국 치대55
△홍승연 미대101 △홍지희 농대57
△황갑손 行院59 △황성순 자연95
△황세영 인문84

◆인문대	◆김기학대	◆홍성준교
◆사회대	◆김광표교	◆박익삼교
◆안양대	◆염영태교	◆이건희교
◆하봉우교		
◆자연대		◆이연신교
◆경대	◆백우환교	◆원효성교
◆광화교		
◆공대	◆강정환교	◆김병규교
◆김병기교	◆김기수교	◆김영복교
◆박희철교	◆태성기교	◆이희하교
◆박광남교	◆박익주교	◆박익삼교
◆박찬진교	◆박정순교	◆박성호교
◆박준호교	◆변찬관교	◆신기호교
◆승효상교	◆오호석교	◆원광주교
◆원준희교	◆유기범교	◆윤재석교
◆원재하교	◆이기훈교	◆조두환교
◆이정길교	◆이필영교	◆이철승교
◆이효일교	◆장정준교	◆장정배교
◆전진태교	◆정근영교	◆정성진교
◆정현모교	◆정현일교	◆조두환교
◆조재래교	◆조우현교	◆최정호교
◆조희태교	◆조수교	◆최정호교

◆문헌대 △강신화(吳) 김기주(吳)
△김소유(吳) △시정유(吳) △오호연(吳)
△이종득(吳) △최동식(韓) △조영인(韓)
◆미대 △김 배(韓)
◆법대 △강 후(韓) △강기종(韓)
△권병현(韓) △김기인(韓) △김동원(韓)
△김두희(韓) △김기창(韓) △김동환(韓)
△김상진(韓) △김정현(韓) △김수득(韓)
△김홍찬(韓) △나경원(韓) △민수영(韓)
△변기철(韓) △변기락(韓) △서영현(韓)
△신영관(韓) △심강기(韓) △심정기(韓)
△오복동(韓) △이병식(韓) △이상배(韓)
△이강희(韓) △이재훈(韓) △이종준(韓)
△이지수(韓) △이정현(韓) △이희범(韓)
△이효종(韓) △임종진(韓) △조충환(韓)
△최기환(韓) △최진국(韓) △최희희(韓)
△최영도(韓) △최재훈(韓) △한동우(韓)
△허 병(韓)
◆사대 △김근규(韓) △강시영(韓)
△박익두(韓) △박종달(韓) △변영익(韓)
△이기태(韓) △노노연(韓) △이성훈(韓)
△최정관(韓)
◆산대 △강승두(韓) △구경희(韓)
△김광복(韓) △김재현(韓) △김종석(韓)
△김기우(韓) △김기현(韓) △문운석(韓)
△시주성(韓) △안백하(韓) △오강목(韓)
△윤우진(韓) △이민산(韓) △이희도(韓)
△김지우(韓) △조영현(韓)

◆수외대 △택오삼^ㄹ △최소호^ㄹ
◆약대 △김 우^ㄹ △서석수^ㄹ
◆윤도중^ㄹ △윤운창^ㄹ △이규호^ㄹ
◆이순석^ㄹ △임업근^ㄹ △조우열^ㄹ
◆주영현^ㄹ
◆몸대 △손국임^ㄹ
◆의대 △강일태^ㄹ △고원삼^ㄹ
◆진근우^ㄹ △김재면^ㄹ △신우철^ㄹ
◆신민우^ㄹ △유태연^ㄹ △유규주^ㄹ
◆장동원^ㄹ △조성수^ㄹ △최진수^ㄹ
◆치대 △변기정^ㄹ △박봉준^ㄹ
◆박형운^ㄹ △변기정^ㄹ △부삼환^ㄹ
◆이음우^ㄹ △이재우^ㄹ △이무봉^ㄹ

◆임장갑심① △장삼정⑦
 ◆대학원 △박민준⑩ △윤용훈⑨
 ◆보대원 △이규찬⑧
 ◆현대원 △육근열① △이계호⑤
 ◆AMP △김기웅② △김혜삼⑥
 ◆남중철④ △오병제⑦ △홍복현③
 ◆AIP △우영식② △이상완⑦
 ◆이성남⑨
 ◆ACAD △이재준③
 ◆SGS △김광우③ △박종인⑤
 ◆순성요⑦
 ◆APC △조성철⑤
 ◆HPM △오창록①

- ◆인문대 스켈기국록 △문선호
- △이재학
- ◆사훈대 김성서유 △김준하
- △김정우 △정기창 △정영인
- ◆자연대 심소홍영 △이 다현
- △이은열
- ◆인문대 △이은주 △정연명
- ◆경영대 △김충현 △박기준
- △홍순배 △최창복 △이호호
- △왕순배
- ◆공대 △강호석 △조경덕
- △권자숙 △권자은 △김정민
- △김동국 △김세영 △김영진
- △김재성 △김기현 △조리문
- △남광민 △노환영 △박유경
- △성기환 △송미라 △기지호
- △신효준 △이택주 △이민수
- △이병철 △여민준 △조진열
- △이영진 △달일민 △정재명
- △조영선
- ◆농대 △김정기 △김준원

△박정원△반성현△신동원
△이도현△이명남△이희로
△정기수△한영순△황용진
◆문리대 △곽호영△권동숙
△김규현△김수년△김인철
△김창준△김정호△박승곤
△박지용△박창남△방병채
△신윤식△신정우△이복선
△유희근△이대주△이재룡
△이종길△이평우△정종하
△정호지△정문영△조창연
△원오백

◆마대 △이은삼② △홍승연②
◆밭대 △강진 건② △이은숙②
△김희화② △강갑선② △김영희②
△김용득② △김진병② △김찬동②
△김태범② △박영구② △최지훈②
◆문둥두② △박현석② △유상복②
◆순서상② △이강수② △이철진②
◆정익원④ △최갑철②
◆사대 △강양철② △김갑중②
△김혜선② △박문수② △박원규②
△박은배② △신산철② △신현정②
△이광범② △이순영② △이옥춘②
△전래자② △전영우② △최재민②
△진지관② △최길순② △홍동문④
◆흥은경⑤
◆삼대 △강경주② △김희환②
△김남택② △남기호② △서문준②
△손영수② △손훈근② △시창현②
◆영애제② △이영순② △이정호②
△이인용② △장안남② △채규원②
△최병렬② △한희수② △허 석②
◆홍구희②

◆생물대 △김지연⁵²
◆수의대 △신광순⁵² △신대섭⁵³
◆신한철⁵⁴ △장대홍⁵⁴ △황인화⁵⁵
◆약대 △정태홍⁵¹ △김규근⁵⁶
△김종길⁵⁶ △김재학⁵⁷ △이계준⁵⁸
△이상모⁵⁹ △홍순태⁶⁰
◆음대 △이정선⁶¹ △홍은빈⁶²
◆의대 △권영길⁶³ △김석기⁶³
△박유진⁶⁴ △박재교⁶⁵ △박현철⁶⁶
△백성현⁶⁶ △신병호⁶⁶ △유 준⁶⁷
△정대신⁶⁸ △최영희⁶⁹ △최현규⁷⁰
◆치대 △김경남⁷¹ △김원규⁷²
△박현선⁷³ △박기호⁷⁴ △송은경⁷⁵

- ◆보대원 △기호일¹⁰ △박현봉⁷
- ◆태대원 △유동주⁷
- ◆AMP △권가정⁴ △권오석¹¹
- ◆김 훈⁴ △김병관⁴ △김오현¹¹
- ◆김정규² △문기관⁴ △노병익²
- ◆삼성구¹⁵ △박승운⁶ △백운광⁹
- ◆정경자² △정환익¹⁷ △지종우⁶
- ◆최종명¹¹
- ◆AIP △김유필¹² △김익오³
- ◆이상식¹⁵ △정영호²
- ◆ACAD △김영준¹¹ △김정환⁴
- ◆박민우⁴⁰ △신건식¹⁷ △조남준¹⁵
- ◆ABP △심형브¹⁰ △허선구⁷
- ◆SGS △방기석¹¹
- ◆APC △조진환⁹
- ◆HPM △이상복⁵ △한성집¹²
- ◆AMPP △김종대¹ △최이현²
- ◆AIC △박병휴¹⁰ △박시영¹¹
- ◆IIP △신재섭²
- ◆GLP △이석형¹²
- ◆AJP △이관호³

◆ 동경지부 494,283

1 월 계 :	141,664,283원
평생회비 :	79,400,000원
입 회 비 :	50,000원
총 계 :	221,114,283원